

2022. 지역학 자료 수집사업

응답하라! 가정오거리

결과자료집

2022 지역학 자료 수집사업 응답하라! 가정오거리 결과자료집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 2022. 지역학 자료 수집사업 <응답하라! 가정오거리>는 개발로 사라진 가정오거리(가정동 539, 루원시티 대성베르힐2차 더센트로 아파트 205동과 206동 사이)로부터 반경 1km까지를 범위로 함.

* 본 자료집은 가정오거리의 지도상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인터뷰를 기초로 1980년대에서 현재까지의 시기를 범위로 하였음.

* 본 자료집의 지도는 네이버맵과 카카오맵, 인천광역시 지도포털을 활용 하였음.

• 차례

1

응답하라! 가정오거리 사업 개관

사업배경 및 추진목적	2
사업내용 및 일정	3
조사과정 및 방법	4

2

가정오거리의 형성과 변화

가정오거리의 역사	7
지도로 보는 가정오거리의 변화	11
2022년 루원시티 개발 모습	21
신문기사로 보는 가정오거리 연표	26

3

우리 기억 속, 가정오거리의 그곳

이름 없는 시장	30
삼희상가	33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던 개나리아파트	35
인천봉수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추억과 장소	37
그리고, 가정오거리 추억과 장소	39

4

응답자들, 가정오거리와 사람들

인천 서구의 몽마르뜨 언덕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 박삼숙	41
다른 동네에 가도 생각나는 우리 동네, 가정동 이진숙(가명)	43
개나리아파트에 청춘을 묻다 지순철	46
네모현수막과 장난감나라 김금이	49
특별한 날은 영빈관과 함께 이영순	53
어린이 버뮤다 삼각지대, 가정오거리 임승록	56
카페 그루터, 가정동의 뉴 피플(New people)이 되다 김근우	60
봉수교육-사람됨의 철학-으로 세상을 밝힌다 이정미	63

5

에필로그

나에게 가정오거리는....	6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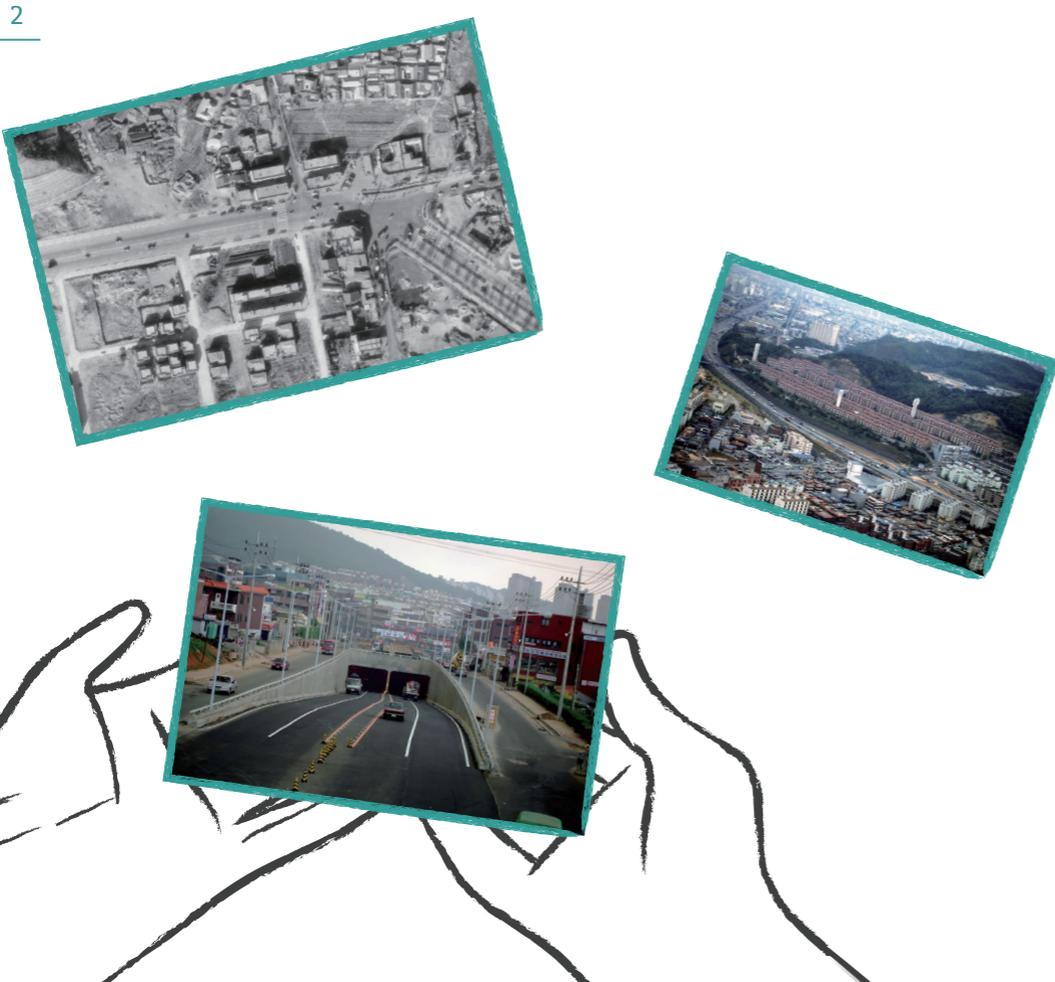
1 응답하라! 가정오거리는...

• 사업배경 및 추진목적

지역의 사람, 장소, 생활 문화 등 지역성을 가진 것들을 기반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은 지방문화원의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인천서구문화원은 개원 이래 20년간, 현재까지 인천 서구의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서구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2022. 지역학 자료 수집사업의 방향을 고민할 때, 문득 서구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더 이상 없어지기 전에 기록해 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에서 <응답하라! 가정오거리>가 시작되었다.

2010년경까지 인천 서구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가정오거리'를 기억할 것이다. 인천 서구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오거리, 늘 차가 막혔던 도로, 수많은 건물, 그리고 오거리 주변으로 붙었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시절의 가정오거리를 추억하는데 도움이 될까?

가정오거리는 개발로 인해 한순간 폐허로 변했다가 2022년 현재 모든 것이 새로운 뉴타운-루원시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가정오거리에 대한 기억들은 수집되지 못하고 갑자기 사라졌다.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완전히 변하여 없어지기 전에, 가정오거리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이웃들의 기억으로 가정오거리의 모습을 정리해 두자고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오거리가 남긴 자료와 흔적, 그리고 사람들의 추억을 모아보기로 했다.



• 사업내용 및 일정

2022. 지역학 자료 수집사업 <응답하라! 가정오거리>

· 내용

인천서구문화원에서는 가정오거리 일대(반경 1km)에 거주하거나 활동했던 이들의 기억과 자료를 모아 지금은 없어진 가정오거리의 모습을 복원해 보고, 현재도 변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사진, 인터뷰, 녹음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하고자 함.

· 기간 : 2022년 3월~12월

·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계획수립												
기존자료수집		신문기사, 사진, 인터넷 등 1차 자료 수집										
자료집 방향수립												
사진, 수기공모			1차	2차								
구술, 채록, 녹취문 작성, 영상작업		지역주민 인터뷰 11회 진행										
가정오거리 답사		월 1회/ 촬영, 녹음										
드론촬영					1차					2차		
검독, 중간정리							1차		2차			
편집, 발간, 발송												



구 가정오거리 지역 드론촬영 (2회 진행)



지역주민 인터뷰 (11회 진행)



지역 조사_루원복합청사 착공식 (2022년 9월 1일)



지역 조사_옛 가정오거리 주변 기록 (수시 진행)

• 조사과정 및 방법

2022. 지역학 자료 수집사업 <응답하라! 가정오거리>는 사업 세부계획 수립 후 문헌 조사와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가정오거리의 형성과 개발과정에 대한 정리를 시작했다. 현지조사 작업도 병행하였는데,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가정오거리 주변을 답사하고, 변화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며, 주변의 소리를 녹음했다. 출장을 오가는 동안 어느 날은 한가한 느낌이기도 했고, 어느 날에는 공사장의 소음도 들었으며, 장마철에는 느닷없이 울고 있는 개구리가 반갑기도 했다. 가정오거리와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동안 인근 주민의 이야기를 청취하며 주민과의 라포 형성(Rapport building)을 진행하였다.



지역조사 중 만난 백광석 컴퓨터 학원의 흔적 동우1차 아파트 게시판에서 만난 가정오거리 사거리로 변한 가정동 중심부 (출처 : 카카오맵) 아직도 가정오거리 표지판이 남아있는 승학길의 모습

가정 1~2동을 아우르는 일대를 가정오거리로 통칭해 불렀기 때문일까? 이 부근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뷰 중 '가정오거리 산다'고 말을 했다. 가정오거리가 없어진 지금에도 사람들은 이 지역을 가정오거리라고 부른다. 지역조사를 하면서 가정오거리 게시판이나 가정오거리 근처에 있었던 가게나 학원들의 광고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니 가정오거리가 사라지지 않은 느낌이었다.

4월부터 10월까지 '가정오거리'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 사진을 '자료화'하였다. 이를 통해 개나리아파트 및 삼희상가 등 당시 가정오거리 주변 사진과 주민의 이야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듯, 현재는 개발로 인해 가정오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전적으로 가정오거리 인근에 거주했거나 당시 그곳이 생활권이었던 분들의 협조로 이뤄질 수 있었다. 참여하신 주민분들은 모두 가정오거리에 대한 추억과 이야기를 나누며 남다른 감회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도 전화로, 메일로, 가정오거리에 대해 말씀 드릴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연의 무겁고 가벼움을 떠나 상당히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응답하라! 가정오거리> 사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과정은 인터뷰였다. 우리는 가정오거리에 남다른 추억이 있는 구술자 11명을 섭외했고, 구술자의 상황에 맞는 10개 내외의 질문을 작성해 인터뷰, 구술문 작성 및 검독을 진행했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구술자별로 가정오거리에 대한 추억과 장소를 정리하고,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옛 가정오거리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5월과 10월 2차례 드론 촬영을 했다. 옛 가정오거리 지역과 비교하며 촬영함과 동시에 현재 인천서구문화원이 있는 가정루원시티 쓰리엠타워(인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의 옥상에서도 기록을 남겼다. 이 자료들은 향후 가정오거리 주변의 개발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자 기록물로 이용될 것이다.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대어 보세요!



2022년 5월 4일
가정오거리 자리에서 녹음한 소리



2022년 6월 30일 비가 오던 날,
가정오거리에서 들리던 반가운 소리

쓰리엠 타워 인근 비교모습 (출처 : 카카오맵)
(사진 속 붉은 색 표시가 인천서구문화원 건물이 있는 곳이다)



2007년

2022년

2 가정오거리의 형성과 변화

• 가정오거리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오거리의 정식 주소는 가정동 539번지 일대로 현재 루원시티 대성베르힐2차 더센트로 아파트 205동과 206동 사이에 위치했다. 가정오거리가 속한 가정동(佳亭洞)의 이름은 조선전기 문신이었던 조반(趙胖, 1341~1401)이 '가정(佳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말년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1955년 10월 1일 인근의 신현동과 석남동을 통합해 가정·신현·석남동이라고 부르다가 1977년 5월 10일에 석남동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1983년 10월 1일에 석남동을 석남동과 가신동(佳新洞)으로 동을 나누었는데 이때, 가정동은 가신동에 속하게 되었다. 1990년 1월 1일, 인구 증가로 인해 가신동은 다시 가정동과 신현동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다시 분리된 가정동은 1991년에 1동과 2동으로 분동했으며, 가정 2동을 1993년에 다시 한번 가정 2동과 3동으로 나누면서 마침내 현재의 행정구역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¹⁾



현재의 도로와 2010년 가정오거리 모습 비교 (출처: 카카오맵)

가정동에는 옛날 본 마을인 가정마을과 산 밑 마을 그리고 봉화촌이라는 세 개의 자연취락이 있었는데 특히 봉화촌에는 부락이 등지고 있는 '축곶산'에 봉수(烽燧)가 있었다. '인천봉수초등학교'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유래하였다.

산 밑 마을은 심곡동으로 넘어가는 상아고개인 승학현 밑에서 지금의 경인고속도로로 서인천C까지 자리 잡았던 마을을 가리킨다. 가정오거리를 중심으로 가정동 본 마을에서 심곡동으로 넘어가는 상아고개, 승학현 밑에서 경인고속도로, 안아지고개(철마산과 계양산을 연결하는 효성동으로 넘어가는 길)로 이어져 이곳은 과거부터 지역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²⁾

1) 『서구사-상』(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p.72.
2) 앞의 책, p.97.

이번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인천서구문화원 SNS채널을 통해 가정오거리를 기억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활발한 소통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을 꼽고 싶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기증자의 동의를 거쳐 인천서구문화원 SNS채널을 통해 '가정오거리 라디오'로 재기획하여 공개하였으며, 당시 가정오거리를 그리워하는 분들에게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 4회에 걸쳐 1주일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이야기 구성과 영상작업을 직접 진행했기 때문에 업데이트의 시간이 더 짧게 느껴졌다. '가정오거리 라디오' 1화에서는 당시 가정동 최고의 생일파티 장소였던 '롯데리아' 생일파티 사진을 카드뉴스 형태로 다뤘는데, 1화 업로드 이후 정말 라디오처럼 만들어 줄 수 없냐는 의견을 반영하여 2화부터는 사진과 함께 내레이션을 삽입하여 제작했다. 3화는 처음 입주 시기부터 가정동 개나리아파트에 살다가 루원시티 개발과 함께 가정동을 떠나야 했던 지순철님의 이사 가던 날을 각색해 보았다. 4화는 이진숙(가명)님의 자녀가 부광유치원에 다녔을 때 인천봉수초등학교를 빌려서 체육대회를 했던 날의 사연을 재구성했다. 제보자들은 '가정오거리 라디오'를 들으며 그 시절의 감성이 기억나 추억에 잠겼다는 감상을 전해주셨다.



홍보이미지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대어 보세요!



3화 굿바이, 개나리아파트



4화 어린이날 준비~운동회 땅!

'가정오거리 라디오'는 총 4회 업로드 했다. 주민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과 사연을 각색해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회차별로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

〈응답하라! 가정오거리〉에서 주민들의 사연으로 진행된 '가정오거리 라디오' 목록

번호	제목	사연 제보자	업로드날짜	연관장소
1	제 생일 파티 오실분?	임승록	2022.6.16.	롯데리아 가정점, 인천봉수초등학교
2	웰컴 투 봉수초	임승록	2022.6.23.	인천봉수초등학교
3	굿바이, 개나리아파트	지순철	2022.6.30.	개나리아파트, 승학길
4	어린이날 준비~ 운동회 땅!	이진숙(가명)	2022.7.7.	부광유치원, 인천봉수초등학교

〈응답하라! 가정오거리〉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내용을 통해 가정오거리의 형성부터 현재까지 지리적으로 혹은 동 시기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정오거리와 그 일대가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간의 변화 속에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도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인천은 1960년대 정부의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중공업 육성 정책으로 서울과 함께 공업단지로 크게 발전했다. 그중에서 서구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경인고속도로의 착공이었는데 1967년 3월 영등포부터 가좌동까지 경인고속도로가 착공되어 1968년 1월 개통되었고, 고속도로가 관통하여 갈라진 서구와 가정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남북으로 긴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1980년대 초, 경인고속도로 인근 가좌동, 석남동에 공단과 배후 주거지가 형성되었고, 가정동 서인천IC 주변에 주거 상업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³⁾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가정오거리는 개발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가정오거리 변화의 서막은 2005년 1월 가정오거리 일대 약 29만 평을 국제적 수준의 뉴타운으로 건설하겠다는 안상수 시장의 신년 인터뷰로부터 시작했다.⁴⁾ 이 사업은 원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77층 규모의 쌍둥이 빌딩 등 금융 중심도시건설과 함께 영화제작, 스튜디오, 방송국, 테마파크,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정오거리 개발에는 재원조달, 사업성, 보상 및 이주대책 등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었다. 게다가 인천시와 LH공사가 추진하는 서인천IC일원 가정오거리(루원시티)도시개발 사업은 원주민 보상문제 등으로 개발까지 난항을 겪었다. 2006년 12월 4일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가정오거리 도시재생 보상관련 설명회는 무산되기까지 했다.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가정동 주민들과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현LH)가 참여한 대립 양상을 보이며,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1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되었지만 2009년 10월 건물 철거를 진행하면서 떠나지 못한 주민들과의 마찰도 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이 떠난 뒤에도 가정오거리는 막대한 철거 비용과 넘쳐나는 빈집, 쓰레기, 좋지 않은 치안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사람들은 당시 가정오거리의 모습을 '유령도시'라 일컫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4년 아시안 게임을 위한 도로 직선화 공사 및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폐허로 변한 가정동을 기록하고 전시를 개최한 사례도 있었다.⁵⁾ 변화하는 가정동의 모습을 기록한 그는 2011년 가을부터 가정동 재개발 지역의 건물과 풍경을 사진으로 찍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가정동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을 사진으로 남겼다. 사진작가는 청라행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작스럽게 내린 곳이 가정동이었는 데 그렇게 가정동을 만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몇 년동안 가정동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고, 당시 가정오거리 주변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가 남긴 소논문을 통해서 접하기 바란다.⁶⁾

3) 위의 책, p.217~218.

4) [신년 인터뷰] 안상수 인천시장. "올해는 인천투자해" 2005년 1월 24일 한국경제신문 기사 참조.

5) 사진작가 장수선이 사람들이 떠나고, 당시 가정동의 모습을 기록하는 전시회「가정동에서」였다.

이 전시는 2013년 9.6.(금)~9.15.(일) 12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사진 공간 배다리에서 진행되었다.

6) 장수선, 포토에세이「지하박물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황해문화』91호, (새얼문화재단, 2016), p.219~223.

개발과 철거가 진행되는 가정오거리의 모습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만날 수 있으며, 배경이 된 작품들은 아래의 목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가정오거리에서 촬영한 영화들

번호	작품명 (감독, 연도)	출연진	촬영지점
1	도둑들 (최동훈, 2012)	김윤석,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김수현, 오달수	건물 외벽
2	내가 살인범이다 (정병길, 2012)	정재영, 박시후	골목, 구원교회
3	모비딕 (박인제, 2011)	황정민, 진구, 김민희,	신동산교회, 개나리아파트, 가정2동 상가골목
4	도둑들 영화를 만들다 (김진상, 2012)	김윤석,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김수현, 오달수	인천봉수초등학교, 개나리아파트

당초, 2013년까지 마무리 예정이었던 개발은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오랜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오다가 2015년 3월 LH가 공동사업 시행자인 인천시와 사업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2016년 12월 20일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 착공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의하면 2006년 8월 28일부터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오거리 주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라·가정지구와 연계 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한다.⁷⁾



7)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build/BU040218>

영화 속 가정오거리 (이미지 협조 : 쇼박스 제공)



도둑들(건물 외벽)



도둑들 영화를 만들다 (개나리아파트)



내가 살인범이다 (구원교회)



내가 살인범이다 (골목)



모비딕 (신동산교회)



모비딕 (인천봉수초등학교와 개나리아파트)



모비딕 (가정2동 상가골목)

• 지도로 보는 가정오거리의 변화

가정오거리의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지도가 있다. 인천광역시 지도포털은⁸⁾ 1년마다 지역의 변화를 살핀 항공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1985년부터 2020년까지 가정오거리의 변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1985년부터의 사진에서는 오거리의 모습은 없고, 1990년부터 오거리의 모습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오거리를 중심으로 빈 공터와 밭이 줄어드는 모습이 지도 상에 확연히 드러나며, 그 자리에는 주택과 상가가 지어져 이 지역에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가정동이 주거지역으로 각광 받은 이유는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인천 서구 지역에는 의외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해 이주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 기사에서는 경인고속도로를 따라가다가 서인천IC에서 내려가면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등 대단위 택지가 나오는데 가정동의 경우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고 주거지역 대지가 16~17만 원 선, 상가 지역이 30만 원 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⁹⁾ 그 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지역이 목재단지 등 공업지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정동 역시 이와 관련하여 인구가 유입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현재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인천봉수초등학교는 1988년 개교하였는데 1987년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1988년 개교 시점에 맞춰 건물이 완공되었음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봉수초등학교의 개교는 당시 인구의 유입에 큰 영향을 받았다.



1987년 인천봉수초등학교 자리와 가정오거리 (출처: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1988년 인천봉수초등학교와 가정오거리 (출처: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8)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항공지도 <https://imap.incheon.go.kr/icmap/map.jsp> 을 참조.

9) 아파트 「가을 기지개」 동아일보, 1983년 9월 16일 기사 참조.

인천봉수초등학교 오른쪽에 위치한 개나리아파트가 처음 지도에 등장한 것은 1987년도이다. 개나리아파트는 가정오거리까지 직선거리로 불과 450미터로, 가정오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였다. 17, 18평형으로 구성된 1,2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였고, 총 6층 규모였다. 총 분양가는 로열층이었던 2, 3층이 1,450만 원으로, 가장 저렴한 6층인 1,250만 원 보다 200만 원이 더 비쌌다. 신문지면광고로 확인할 수 있는 개나리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1987년 11월 30일경인데, 1988년 9월 1일이 인천봉수초등학교의 개교일인 것을 통해 인천봉수초등학교가 개나리아파트를 비롯해 입주 시기가 비슷한 태화미성아파트 등의 주변 아파트들의 입주 시기에 맞추어 개교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 중 입주 초창기부터 개나리아파트에 거주하셨다는 이형순님은 당시 주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 저는 결혼을 앞두고 1987년 12월에 신혼집을 구하다가 개나리아파트에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산 밑 높은 언덕에 개나리아파트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했는데 전기장판을 사서 깔았습니다. 주변은 도시가 아닌 시골 변두리 느낌이었어요. 변화된 지금의 가정오거리를 보면 그때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인천봉수초등학교 뒤 야산을 개간하여 동우아파트 가는 쪽에는 농사를 짓고, 돼지우리도 있었어요. 개나리아파트 입주 후 인천봉수초등학교가 지어지면서 급속도로 주변이 개발 됐습니다. ”



가정오거리 중심부에서 개나리아파트, 도보로 6분거리이다. (출처: 카카오프맵)

당시에는 국철인 1호선 오류역에서 가정오거리 인근 아파트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파격적인 조건'도 입주를 결정하는 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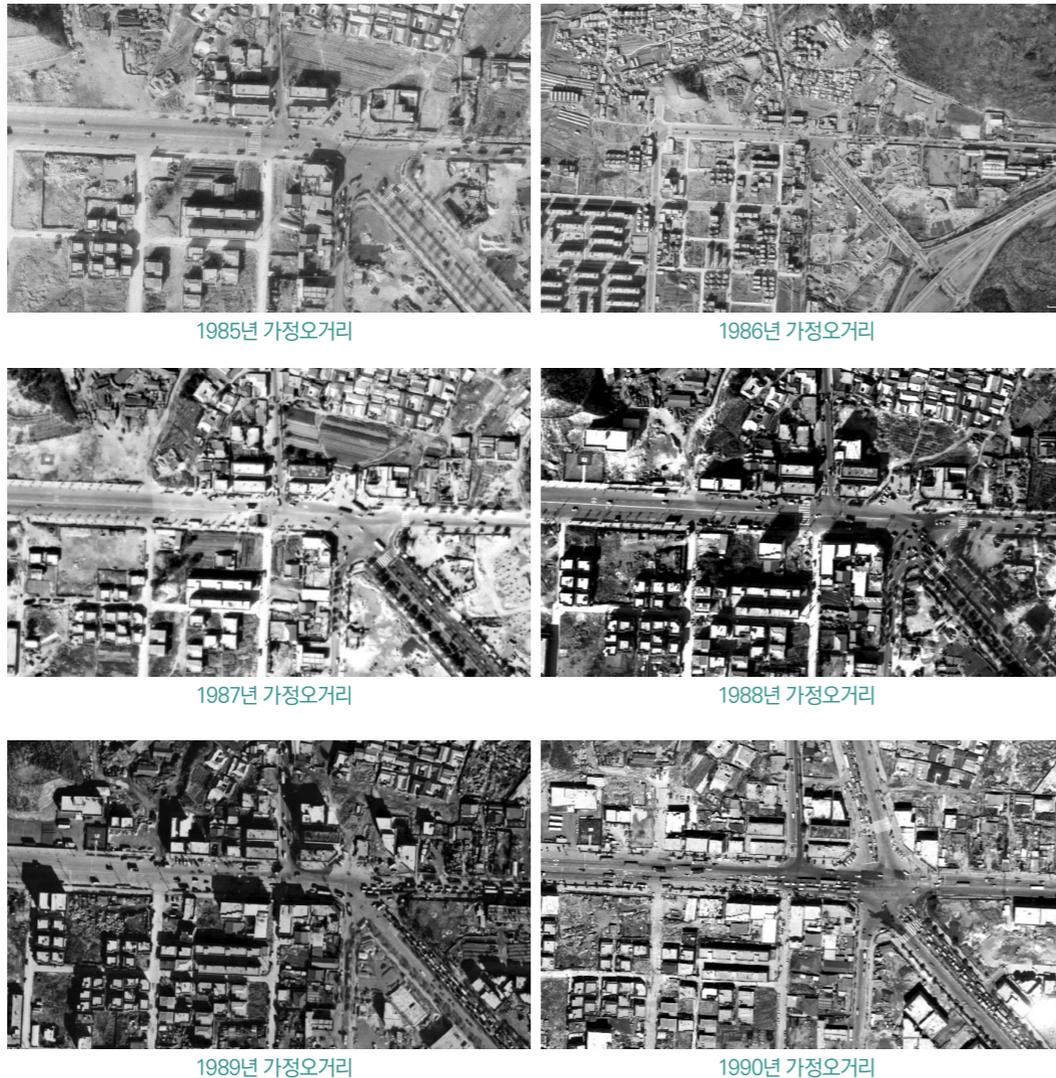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입주한 가정오거리 인근 아파트

번호	아파트 이름	준공일 (입주예정시기)	세대수	비고
1	개나리 아파트	1987.11.	1,200	입주일
2	뉴서울 아파트	1990.12.	555	고층
3	동우1차 아파트	1988.01.	474	
4	동우2차 아파트	1988.02.	252	
5	성광 아파트	1987.12.	114	
6	태화미성아파트	1987.11.	660	
7	하나1차 아파트	1989.11.	252	고층
8	하나2차 아파트	1992.02.	495	고층
9	하나3차 아파트	1993.10.	274	
10	한성아파트	1992.01.	150	
11	현광아파트	1989.04.	144	
12	GM대우사원아파트	1990.07.	320	

당시 개나리 아파트 신문 지면광고

전언한대로 가정오거리 주변은 오거리가 형성되기 이전에도 서구청, 효성동, 신현동, 부천, 서울 등으로 갈 수 있는 중심 길목이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로 각광받았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서울에서 살기 버거웠던 서민들이 비교적 출퇴근이 용이한 가정오거리 인근의 아파트로 입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대상자 중 서울이나 부천에서 가정오거리로 이주하셨다는 세 분의 이야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오거리 인근 아파트들은 대부분 1980년대 후반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 입주를 마무리했다. 이후 인근에 대우자동차사원아파트 및 조광아파트, 신아아파트 등이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진행하면서, 가정오거리는 주거 및 생활 지역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1985년~1990년까지의 가정오거리 항공지도 (출처 :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가정오거리는 교통의 요지답게 상권과 주거공간이 들어오면서 교통체증이 심하기로 유명했다. 현재도 가정동에 거주하는 주민 정희영님 또한 이곳을 차가 무척 막혔던 곳이었다고 회상한다.

“ 예전 가정오거리는 차가 무척 막히는 곳이었다.
 아버님은 가좌동에 거주하셔서 우리는 주말마다 효성동에서 가좌동까지 이동을 해야 했다.
 그때마다 항상 가정오거리는 상습 정체 지역이었다.
 3번에 걸쳐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만든 자가책으로 지하도로를 개통했다.
 서구청에서 예전의 고속도로까지 지하도로로 차를 운행하게 했더니만
 그 뒤로는 교통체증이 완화되었다.
 (중략)
 가정오거리 쪽에는 영빈관예식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말마다 교통체증이 더욱 심했다.
 그래도 인천에서는 꽤 큰 예식장이었다.”

정희영님이 회상하는 지하차도는 신문기사에서도 착공 소식을 찾아볼 수 있다.¹⁰⁾ 1993년 9월 착공하였으며, 가정오거리에서 서인천IC~서구청 방향의 4차선으로 건설되었다고 보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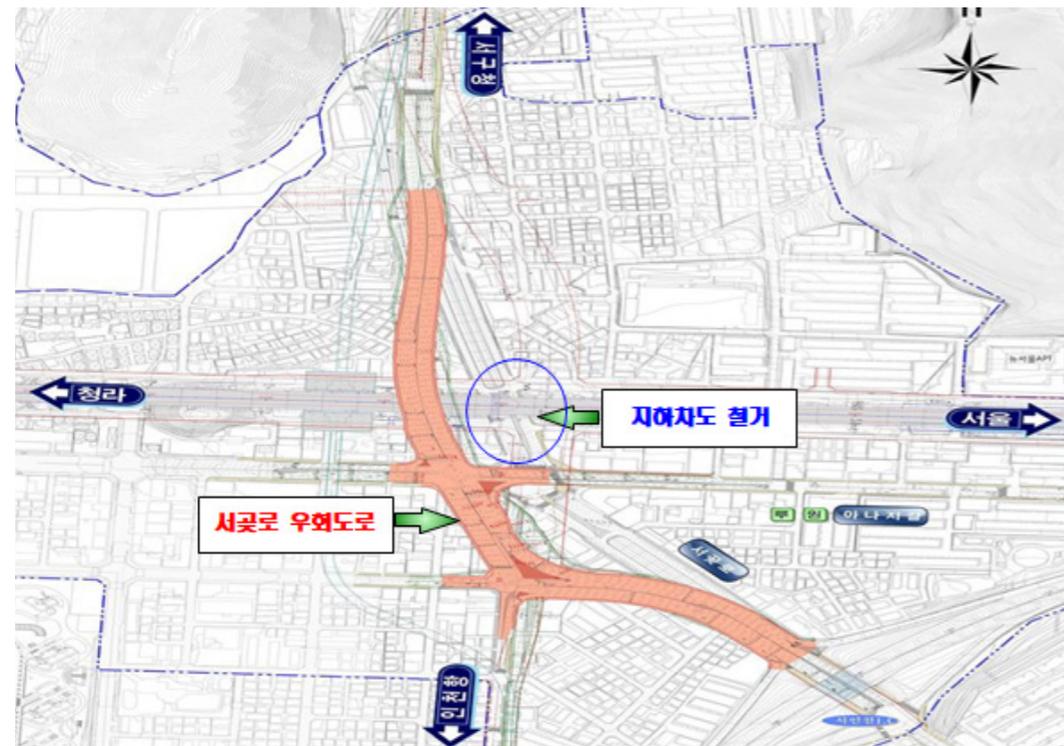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지도포털에서는 1993년과 1994년 사이에 지하차도의 공사과정을 볼 수 있고, 1995년에는 자동차들이 지하차도로 통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0) 地下차도 9월 착공 仁川市, 매일경제, 1993년 8월 11일 기사 참조.

2014년 2월 28일(금), 저녁 6시부터 가정오거리 지하차도가 폐쇄되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와 가정오거리의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서울에서 청라 국제도시를 직접 연결하고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청라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개통을 위해 지하차도를 폐쇄했다. 특히 직선화 사업은 2014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접근하는 교통 수요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2013년과 2014년 항공사진을 통해 도로지형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서구문화원 소장 철거되기 전의 지하차도 모습



당시 가정지하차도 폐쇄안내문에 실린 안내지도 (출처 : 인천광역시 연구구청 홈페이지)¹¹⁾

11) 연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4년 3월 3일
<https://www.yeonsu.go.kr/main/community/notify/notice.asp?page=v&seq=51223>

항공지도로 보는 가정오거리의 연도별 변화의 모습 (1991년~2020년) (출처 :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1991년 가정오거리



1992년 가정오거리



1993년 가정오거리



1994년 가정오거리



1995년 가정오거리



1996년 가정오거리



1997년 가정오거리



1998년 가정오거리



1999년 가정오거리



2000년 가정오거리



2001년 가정오거리



2002년 가정오거리



2003년 가정오거리



2004년 가정오거리



2005년 가정오거리



2006년 가정오거리



2007년 가정오거리



2008년 가정오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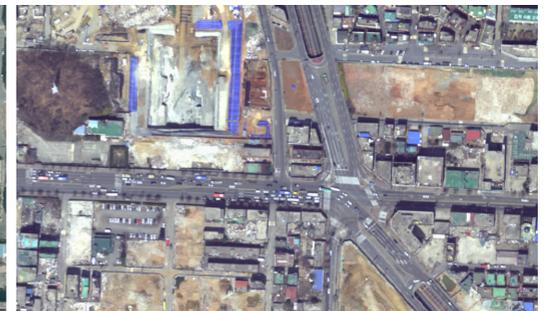
2009년 가정오거리



2010년 가정오거리



2011년 가정오거리



2012년 가정오거리



2013년 가정오거리



2014년 가정오거리



2015년 가정오거리



2016년 가정오거리



2017년 가정오거리



2018년 가정오거리



2019년 가정오거리



2020년 가정오거리

2014년부터 가정지하차도가 폐쇄되어 없어지고, 2016년 7월 30일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을 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가정오거리는 사라졌다. 역세권이 된 주변 지역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빠르게 들어서며 몰라볼 정도로 변한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가정오거리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추억으로 남아, 때로는 그리운 감정과 함께 불쑥 찾아들곤 한다.

• 2022년 루원시티 개발 모습

2022년의 루원시티(옛 가정오거리 지점 인근)를 사진으로 기록한다. 5월과 10월, 맑은 하늘에 드론을 고도 120미터까지 띄워 보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는 아파트가 더 높았다.



2022년 5월 4일 촬영한 가정오거리 일대의 모습 (표시 지점이 옛 가정오거리가 있던 자리)



2022년 10월 31일 촬영한 가정오거리 모습

드론촬영 현장 스케치



10월 31일, 드론의 고도가 139미터에 이르렀다. 5월 4일 1차 촬영 때만 해도 110미터 남짓이었는데, 짓고 있는 건물이 그새 더 높이 올라간 것이다. 이 주변 아파트의 입주 시작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북적일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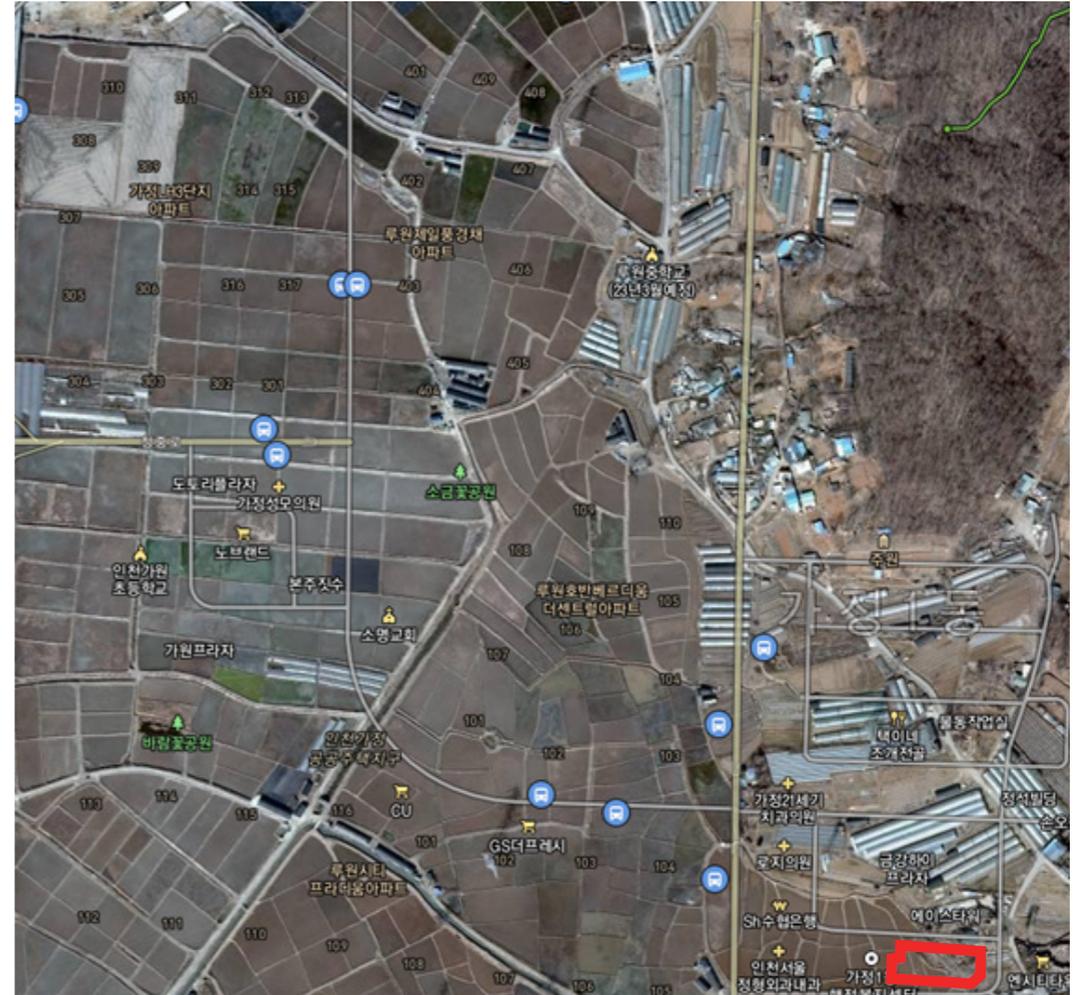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대어 보세요!



인천서구문화원의 <응답하라! 가정오거리> 드론 촬영 모습은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했다.

인천서구문화원(쓰리엠타워 뒷면) 주변 카카오맵 사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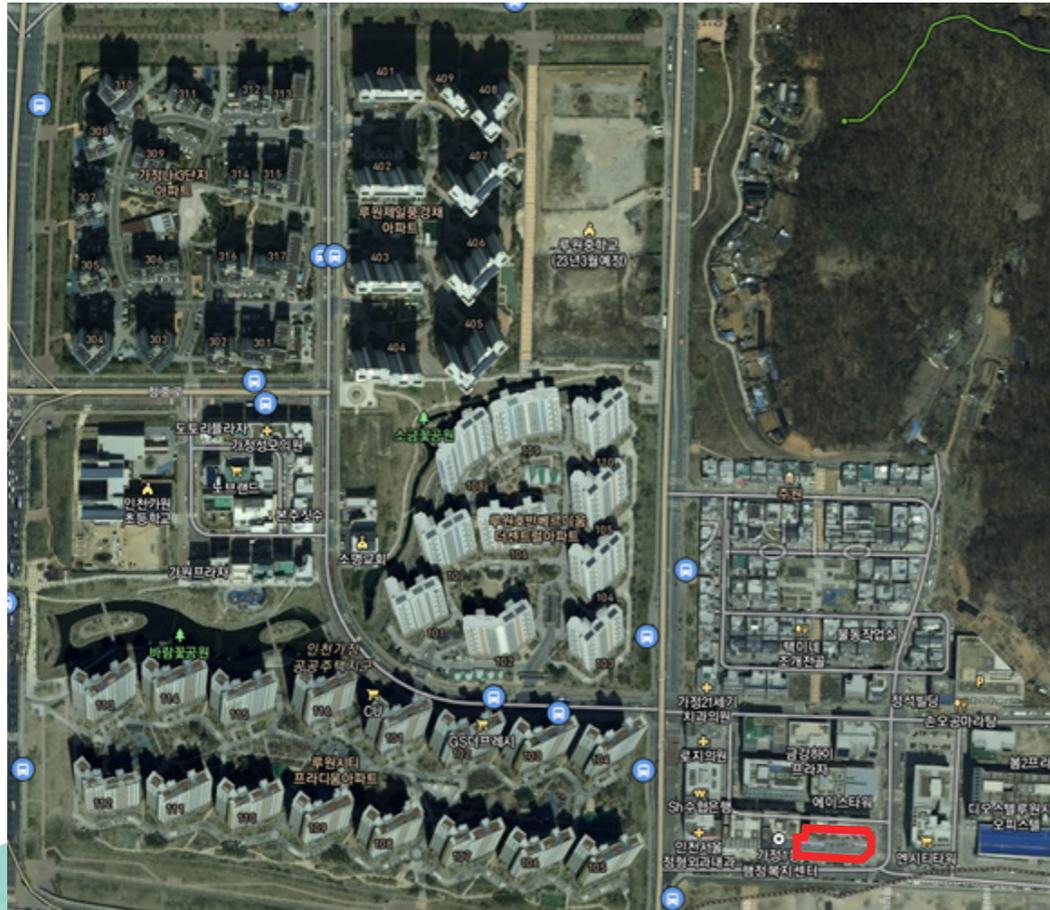


안에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인천서구문화원 위치이다.(2008년 지도 비교) (출처 : 카카오맵)

가정오거리 부근 외에도 현재 인천서구문화원이 있는 방향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쓰리엠 타워에서도 드론 촬영을 진행하였다. 이 구역은 가정오거리 중심부로부터 약 750미터 떨어진 곳으로도 보로는 약 10분 정도의 거리이다.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쪽은 참 생소한 지역이었던 것 같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루원SK 1차 맞은편에는 가정동 기동대와 삼화고속 터미널이 있었는데 늘 서울로 나갈 때면 빨간색 버스를 타기 위해 삼화고속 터미널에서 1000번 버스를 기다렸다. 딱 거기까지가 이 구역의 모습이였다. 그래서 삼화고속 버스터미널 뒤로는 사실 무엇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지도상으로 확인하니 농지가 대부분이였다. 중간중간에는 제법 큰 비닐하우스도 보인다. 2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지역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한창 짓고 있는 건물의 분양사무실, 늘 꺼져 있는 신호등과 내달려 오는 자동차, 그리고 공사 및 분양 관계자들의 바쁜 모습들이 모여 자아내는 분위기 덕분에, 인천서구문화원 사무실 주변은 때로 어수선한 느낌이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멀리서 들려오는 공사하는 소리, 주차단속 소리, 신호 없이 씩씩 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이제는 익숙하다. 앞으로 이곳은 어떻게 더 변할지, 더 변하기 전에 사진으로 기록해 보았다.

인천서구문화원(쓰리엠타워 뒷면) 주변 모습(2022)



안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인천서구문화원의 위치이다.(최근) (출처 : 카카오맵)

인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인천서구문화원



2022년 5월 19일 인천서구문화원 옥상에서 촬영한 가정동의 모습



2022년 5월 19일 인천서구문화원 옥상에서 촬영한 옛 가정오거리 모습

• **신문기사로 보는 가정보거리 연표**

가정보거리를 검색하면 어떤 기사들이 나올까?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심각한 이야기까지, 옛 신문에는 가정보거리의 모습과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는 가정보거리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시기별로 정리해 보았다.

연도	내용
1972 ~ 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5.9. 콜럼비아 참전기념비 제막식. 연내 2억달러 완공 송도 등 새 도로 건설 : 제4공구(가정동검문소까지) 1천m 건설 예정. ·1979.5. 86년도 인천 석남 북구, 가정동 남구, 구월동 북구, 산곡동 북구, 석남동 등에 학교 신설 예정됨.
1981 ~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8.1. 북구에서 10개 동이 떨어져 나와 서구 신설, 서구청이 들어섬. ·1988.5. 가정동에서 김포로 이어지는 서곶로를 35m의 폭으로 확장기로 함. ·1988.6. 인천시 서구 가좌동IC에서 석남동 가정동에 이르는 서인천지역은 88년도에 23일 현재 5백11건에 달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건축허가가 나 인천지역에서 건축사업이 가장 활기를 띠었음. ·1989.12. 인천시 중구 북성동 인천역에서 서구 가정동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까지 이어지는 우회도로 개설 공사 착공. ·1990.7. 대우자동차가 인천 가정동에 근로자용 임대아파트 320가구를 건설, 입주식 진행함.
1991 ~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1.4.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검단 및 김포 방면으로 통과하는 편도 3차선 이상의 신설 도로가 부분개통됐다. ·1991.6.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김포시인 검단까지 총길이 3천 8백m(6차선) 서곶로가 75% 공정을 보이고 있다. ·1991.8. 인천시가 이번 달 중 인구 4만이 넘는 남동구 구월1동과 만수1동, 북구 계산2동, 서구 가정동 등 4개 동을 분동기로 했다. ·1991.10. 서구에는 현재 고속도로 가좌IC에서 가정보거리를 연결하는 길이 4.3km, 폭 20m의 가정로와 가정보거리에서 공촌로를 연결하는 길이 3.1km, 폭 35m의 신서곶로 이외에는 별다른 도로가 없는 형편이다. ·1993.8. 인천시는 서구 가정보거리의 교통해소를 위해 총 1백 20억을 들여 길이 5백 40m 너비 16.5m의 지하차도를 오는 9월 초 착공, 94년 12월 말 완공기로 했다.

연도	내용
2001 ~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8.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라지구를 잇는 6.9km의 새로운 고속도로가 추진된다. ·2003.10. 인천시는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가정동)~서구 원창동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를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2003.10. 이를 위해 기존 서인천IC 일대 서구 가정보거리에 경인고속도로(서울~부평~청라지구)와 남북간(서구콜럼비아공원~가정보거리~서곶로) 일반도로가 '십자형' 고가로 설치된다. ·2004.10. 인천시 서구는 서구 가정보거리~공촌사거리 서곶로 3.2km 구간을 '도시경관 형성 시범의 거리'로 지정, 조성하기로 했다. ·2005.1. 안상수 인천시장, "경인고속도로의 서인천IC가 소재한 가정보거리 일대(약 29만 평)를 국제수준의 뉴타운으로 건설키로 하고 올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5.6.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노선은 서구 오류동~서구청~가정보거리~주안역~인천시청~남동구청~인천대공원을 잇는 연장 28.9km이다. ·2005.9. 경인고속도로와 서인천IC 주변의 가정보거리 일대를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함. 총 29만 평으로 1조5천 여억원의 비용이 투입돼 내년 5월부터 시작해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2005.10.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지구에 포함된 서구 가정보거리 일대에 대한 건물 및 토지보상을 시작했다.
2006 ~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5. 인천 2호선이 국비지원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2006.8. 건설교통부는 가정보거리개발사업 및 가정보거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8월 22일(화)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2008.4. 서구 가정보거리 도시재생사업이 루원시티로 최종 확정되었다. ·2008.4. 루원시티 사업 지역 내 이주 및 생활대책이 확정되었다. ·2008.9. 루원시티(인천 가정보거리 도시재생사업지구)의 토지와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1차 보상협약이 74% 협의율을 보인 가운데 마감. 10월부터 본격적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시도 빈집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빈집관리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2009.4.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결정(변경) 고시. ·2009.9. 2008년 10월부터 이주가 시작되었으나, 철거 및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었다. 가정보거리의 유명도시화, 치안 불안 요소 증가. 루원시티 방법초소가 골목마다 설치되었다. 주공에서는 9월 말~10월 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8. 인천시가 도심을 양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백지화 했으나, 루원시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3 우리 기억 속, 가정오거리의 그곳

기억 속 가정오거리의 그곳!
 <응답하라! 가정오거리>에 응답해 주신 분들께서
 가정오거리의 핫 플레이스를 꼽아 주셨다.
 그 시절 오거리에 살 때 자주 지나다니는 장소들이라,
 신바람을 타고 떠오르는 기억들이
 인터뷰 중 즐거운 목소리와 함께 한가득 모였다.
 지금도 생생한 가정오거리의 그 시절, 그 장소로 함께 떠나보자.

연도	내용
2011 ~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12.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경인고속도로와 청라국제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청라지구진입 도로공사(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에 대해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 지난 1일 입찰공고 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가정오거리 주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루원시티 개발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됐다. ·2012.2.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기공식. ·2013.9. 감사원은 2013년 공기업 감사에서 루원시티는 사업성 저하로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했다. ·2013.12. 인천시는 2006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있던 루원시티 사업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기간 연장 고시를 했다. 시는 5년 뒤로 개발 사업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벌였다고 밝혔다. ·2014.6. 1~9공구 건물 철거 완료. ·2015.3. 인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복합개발사업이 5년 만에 정상화된다. 사업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시가 손실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LH와 인천시는 30일 '루원시티 정상화 추진을 위한 협의'를 맺었다. 최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은 양측이 동등하게 분담기로 했다. ·2015.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인천 서구 가정동 일원 루원시티 조성공사 현장에서 인천시 등과 함께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박상우 LH 사장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 및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2016 ~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10. 17일 인천시와 루원시티 상가조합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구 루원시티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업용지 일부(상업2)를 연말께 분양할 예정이다. 시행자는 이 중 2천627㎡ 규모의 2개 필지를 토지수용 전 상가 등을 운영했던 주민들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2019.4. 4일 루원시티 개발 시행사인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루원시티 내 49만 8521㎡ 규모의 매각 대상 토지 중 '54%'가 매각됐다. 대부분 주상복합·공공주택용지와 주차장 부지다. ·2019.7. 인천시가 서북부지역 원도심 재생의 핵심사업인 '루원시티(LU1 City)' 개발을 위해 중심상업용지 3·4블럭 매각을 추진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7월 말 현재 루원시티 단지조성공사 공정률은 약 65%로 연말에는 서곶로 등 주요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며, 토지는 가처분용지(매각용지) 약 50만㎡ 중 61%인 30만㎡를 매각한 상태다. ·2020.12. 인천시가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 민원을 반영해 서구 가정동 일대 '자연경관지구'의 폐지를 추진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비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서구 가정동 550 일대 24만3천㎡ 규모의 자연경관지구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가정오거리 일대의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정동 550 일대 주변에는 49층(147m)짜리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에 가정동 550 일대 주민들은 지난해에만 1만 20여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루원시티 조성에 따른 주거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 1 이름 없는 시장
- 2 삼희상가
- 3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던 개나리아파트
- 4 인천봉수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추억과 장소
- 5 그리고, 가정오거리 추억과 장소

1 이름 없는 시장

가정오거리 인근의 이름 없는 시장은 정말 아무 이름이 없다. 그럼에도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 '시장'이 기억에 남는다 말했다. 이름 없는 시장은 삼희상가 뒤편으로 들어와 개나리아파트로 올라가는 길에 위치했다. 이곳이 언제 형성되었는 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08년 7월 카카오 로드맵으로 시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 7월의 로드뷰 (출처: 카카오맵)



2008년 7월의 로드뷰 (출처: 카카오맵)

가정오거리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정서진중앙시장은 걸어가기엔 조금 멀고, 강남시장과 거북시장은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애매한 거리에 있었다. 간판 없이 장사를 하는 노점, 소일거리로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팔러 나온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발길을 잡아끄는 저렴한 맛난 간식이 참 많았다고 한다.

“

개나리아파트 앞에 바로 나오면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카드를 사용하지만 현금 천원, 이천원만 들고 나오면 파배기 같은 거, 핫도그... 이런 게, 막 먹을 게 엄청 많았어요.

그럼 저는 군것질을 좋아했기 때문에 밥을 안먹어요. 점심을 밥을 안먹고 그거 사먹을 생각에, 아침부터 그래서 늘 풀빵!, 겨울이면 핫도그 이렇게 되게 ... 작은 돈으로 간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추억에 남아요.

박삼숙 의원님 (전 인천 서구의회 의원)

”

“

제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맛있는 통닭집이 있었어요! 옛날 양념 통닭! 비닐에 이렇게 넣어 갖고 담아 주는... 그래서 그런데 가서 또 엄마한테 사달라고 조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임승록님 (당시 인천봉수초등학교 재학생 인터뷰 중)

”

2010년 4월에 촬영된 로드뷰에서는 이미 시장들이 모두 철거된 상태이고, 2011년 8월의 로드뷰에서는 철거된 곳에 보도블럭이 새로 깔렸다. 주변의 건물은 모두 이주를 하고 '공가'라고 빨간 스프레이로 표시가 되어있다. 2022년 지금, 이름 없는 시장이 있던 자리에는 새 도로와 130미터가 훌쩍 넘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사람들은 이곳이 옛날 맛있는 간식 냄새로 가득했던 시장임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름 없는 시장의 변화



2010년 4월의 로드뷰 (출처: 카카오맵) 삼희상가쪽에서 바라본 모습



2011년 8월의 로드뷰 (출처: 네이버맵) 멀리 삼희상가가 보인다.



2022년 7월의 로드뷰 (출처: 카카오맵) 당시 개나리아파트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 고층 아파트쪽이 삼희상가가 있던 자리

가정오거리는 2000년대까지 서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이 모인 곳 중 하나였다고 한다. 특히 삼희상가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4층짜리 건물로, 웬만한 것은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지하에는 지하세일마트, 1층에는 삼희약국, 외환은행, 이브자리, 부동산(부동산랜드, 삼희부동산컨설팅), SK텔레콤, 유진신발 등이 있었고 2층에는 의류쇼핑타운, 각종 병원(이종인치과, 이강치과, 이준섭안과, 장경문내과), 김애경미용실 등이 있었다. 3층에는 램즈 아동복, 대한검도회 상무검도관, 민이비인후과, 그리고 4층에는 헬스장이 있었다. 정확히 몇 층인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도배 장판집(명문지물포), 뉴욕양복점, 뜨개량조화랑, 가구점, 삼희닭집, 삼희바둑 등이 있어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과 은행, 상점이 밀집된 상가였다.

개나리아파트에 거주했던 이형순님은 삼희상가가 생기기 전, 이곳에 서커스 공연도 하고 약장수도 왔다고 한다. 특히 요일 별로 시장이 서고, 직접 농사지은 채소와 과일 파는 할머니들도 계셨다고 기억하고 있다. 특히 매주 수요일 아침에는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두부 장수가 오면 딸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흥미나님은 어릴 적 삼희상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릴 적에는 칼라믹스(색이 있는 찰흙)을, 학생이었을 때는 십자수를 배웠다. 엄마 따라 마트에 가는 날이면 당연히 삼희상가로 갔다. 맛집, 옷집, 수선집 등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다.

“ 삼희상가 안에 십자수, 마트, 옷가게 등등..엄청 많았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삼희상가에서 저를 잃어버리셨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찾기 찾아보고 방송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나중에 찾아보니 옷가게 마네킹 안에 숨어있었다고 하셔요. ”
 흥미나님 (전 개나리아파트 거주자, 당시 인천봉수초등학교 학생)

삼희상가 지하의 대형마트는 가정동 주변을 다녔던 셔틀버스를 운영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한다. 당시 동우아파트에 살았던 이진숙님(가명) 또한 장을 보러 삼희상가에 자주 갔고, 그 셔틀버스를 타고 다녔다고 회고했다.

“ 제가 살았던 동우아파트는 가정오거리에서 걸어가려면 좀 멀었어요. 특히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길이 언덕이니까 그렇게 조금 불편했죠. 겨울에 막 맞바람 치면 엄청 춥고, 가는 길이, 삼희상가에서 내려가지고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게 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 처음에는 셔틀버스가 있어서 삼희상가에서 상가, 마트, 셔틀을 타고 다녔는데 중간에 그게 다 없어지고 나서는 뭐, 마을버스도 없고 걷는 수밖에 없잖아요. ”
 이진숙님 (가명, 전 동우아파트 거주자)

3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던 개나리아파트

이렇게 실속 있는 상점들이 많아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삼희상가는 에덴상가가 생기면서 조금 인기가 시들해 졌다고 한다. 에덴상가와 삼희상가는 연세산부인과 건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했다. 에덴상가 안에서 단연 인기를 끌었던 곳은 에덴할인마트였는데, 사람들은 삼희상가에 있었던 마트에서 에덴마트로 단골을 많이 옮겼다고 한다.



연세산부인과를 사이에 두고 삼희상가와 함께 인기가 있었던 에덴상가

2010년 4월 당시, 삼희상가 (출처: 카카오프)



2013년 없어진 삼희상가, 가정오거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출처: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로드맵과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상으로 확인할 때 2012년 전후로 삼희상가를 비롯한 상가 건물이 모두 비워지고, 2013년에는 건물 자체도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옆에 에덴마트 역시 함께 가정오거리 개발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개나리아파트는 가정오거리와 인천봉수초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1,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였다. 주변에는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시작한 다른 아파트들도 많았지만, <응답하라! 가정오거리>에 응답해 주신 분들 중 대다수가 개나리아파트에 거주했던 분들이었다. 1987년 입주가 시작되어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사라지기까지, 개나리아파트는 25년 동안 주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지순철님의 가족은 2010년에 개나리아파트를 떠났다. 인터뷰에서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떠난 편이다'라고 회고하며, 그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만난 응답자들은 대부분 1987년 입주가 시작된 즈음 개나리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자녀들은 인천봉수초등학교에 입학해 학창 시절을 보냈다. 이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서구청 인근의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2010년 전후로 이주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가정동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



11동 마당에서 음식을 나눠 먹던 개나리아파트 주민들, 1999년 5월 6일 (사진제공: 황영빈님)

어렸을 때 동네친구들과 개나리아파트 화단에서 (사진제공: 황영빈님)

개나리아파트에 살았던 또 한 분, 황영빈님은 아파트 게시글에서 <응답하라! 가정오거리> 홍보물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메일(gajeong5@daum.net)로 사연과 사진을 보내 주셨다. 황영빈님은 태어나서 20살까지 가정동에 거주하였는데 개나리아파트에서 살다가 인천봉수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빈관예식장 옆 태화아파트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름이 근처 영빈관과 같아 별명 '영빈관'이었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메일로 전해 주셨는데, 아직도 가정오거리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고 있다고 하셨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진은 개나리아파트 11동 마당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이었다. 네 집, 내 집 없이 서로 아이들을 보살펴 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웃사촌처럼 지냈던 시절이었다. 비단 황영빈님의 제보 뿐만 아니라 가정오거리 주변 아파트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렇듯 따스하고 즐거운 이웃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보내 주신 사진은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개나리꽃이 만발한 화단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름이 '개나리아파트'여서 그런가, 아파트에 유독 개나리꽃이 많이 피었다고 한다.

4 인천봉수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추억과 장소



개나리아파트 (사진제공 : 지순철님)

지금 들어보면 그 시절 이웃 간에 이야기들이 참 생소하고,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아파트도 없어지고,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도 모두 곳곳으로 이사를 떠났다. 하지만 그 시절 훈훈했던 이웃의 정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듯하다.

1988년 개교한 인천봉수초등학교는 주변의 변화 속에서도 유일하게 그 자리와 모습을 지키고 있는 곳이다.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공간'을 넘어, 어린이들의 하루 생활 반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장소이다. 이번 장에서는 인천봉수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기억 속 장소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정오거리 주변의 아파트가 저렴한 집값,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수많은 부부들의 신혼집으로 선택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 자녀들이 인천봉수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가정오거리를 추억하며 열렬한 응답을 보내주셨다. 인터뷰를 통하여 그 주변의 문구점, 풍뎡, 미나리깡, PC방, 생일파티 장소 등 가정오거리에서 놀고, 먹고, 생활한 어린이들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다.



2007년 2월 26일 아침, 눈 쌓인 인천봉수초등학교 (사진제공 : 지순철님)



현재의 인천봉수초등학교 모습

당시 인천봉수초등학교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이용 빈도가 높았던 장소는 바로 문구점이었다. 인천봉수초등학교 주변에는 문구점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학교 바로 앞에 있었던 보라미문구, 개나리문구완구는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다. 다시 인천봉수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문구점에 가고 싶다는 인터뷰도 있었을 만큼, 당시 어린이들에게 문구점은 보물 찾기의 명소이자 추억의 장소였다.

“ 개나리문구완구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점이기도 하고 사장님이 친절하셔서 이것저것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학교에 갈 때 준비물을 사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구점이 진짜 붐비고 등하교시간에는 줄을 서서 물건을 사고 그랬어요! 실로폰, 실내화, 체육복 등 안산 게 없을 정도로 인천봉수초등학교의 전담 문구점이었어요. ”
 홍미나님 (전 개나리아파트 거주자, 당시 인천봉수초등학교 학생)



개천리문구완구 (사진출처 : 네이버맵)



보라미문구 (사진출처 : 네이버맵)

이렇게 문구점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 앞 문구점답게 게임기도 비치되어 있었는데 게임을 하려고 줄을 많이 섰다는 응답도 있었다. 방과 후에는 주로 학원을 많이 다녔는데, 특히 맞벌이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는 삼희상가 주변에 학원이 많이 있어 그 주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응답하라! 가정오거리> 인터뷰에 참여해준 임승록님의 경우, 인천봉수초등학교 앞에 오렌지 음악학원에 갔다가, 백광석 컴퓨터학원에도 다녔고, 삼희상가 안에 칼라믹스 학원, 삼희바둑학원에 다녔다고 한다. 삼희상가 근처에는 진형학원, 이화피아노학원, 스쿨랜드미술 등 다양한 학원이 있었는데 특히, 진명학원은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서 유명해진 경우라고 한다. 저녁엔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 때문에 차들이 엄청 막혔는데 당시 부모님들의 높은 학구열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천봉수초등학교 입학 사진 (사진제공 : 임승록님)



롯데리아에서 했던 생일파티 (사진제공 : 임승록님)

초등학생 시절 제일 기억에 남는 날은 언제였을까? 아마, 생일이었을 것이다. 당시 인천봉수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했던 생일파티 장소는 바로 롯데리아였다. 응답자 중 한 명은 봉수초 어린이 중에 롯데리아에서 생일파티를 안 한 친구는 없을 정도 였다고 한다. 당시, 롯데리아에는 생일파티 패키지로 햄버거, 치킨, 음료로 구성된 메뉴가 있었고 여러명이 파티를 할 수 있는 단체석이 있었지만 놀만한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주로 여자친구들의 경우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고, 풍뎅을 타거나 노래방을 갔었고, 남자친구들은 롯데리아 지하에 있었던 사이버리아 pc방으로 가서 생일파티를 마무리 했다고 한다. 롯데리아는 당시 에덴상가의 맞은편 1층에 있었다.

미나리깡

지금의 가현초등학교와 신현고 뒤에 미나리깡이 있었는데 아주 가끔 미나리를 뜯으러 갔어요. 논이랑 밭 둘 다 있었는데 논에는 거머리가 있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바 다리에 붙어있는 거머리를 본 이후부터 징그러워서 미나리 안 먹다가 크고 나서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미나리깡 갔던 날 중 하루는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딘가로 전화하면 노래를 들을 수 있었거든! 미나리깡 풀밭에서 노래 듣고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던 기억이네요. 아마 2009년?!

저는 미나리깡에가서 미나리도 뜯고, 고들빼기도, 그때는 약간 언덕진 산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다 없어 졌는데.... 그런데 거기 모기가 진짜 많았어요. 미나리깡에도 주인이 있었을 테니까 독에 있는걸 뜯었는데, 애들이 막 개구리 잡으러 오고 그랬는데 주인이 그냥 애들이 좀 놀아도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뒀던거 같아요.

변화진소아과

어릴 때 자주 가던 소아과인데 의사 선생님 동생분이 영화감독이라고 하셨었거든요!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변영주 감독님의 자매분이셨어요.

까치공원

하나아파트랑 한신빌리지를 이어주는 육교가 있었는데 한신빌리지쪽에 사는 친구 부모님들은 육교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많이 혼내셨어요. 아마 너무 멀리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CCTV도 많이 없어서 위험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육교 아래에 있는 까치공원에서 돛자리 펴고 김밥 먹고 인라인스케이트도 자주 탔고, 가까운 콜롬비아 공원에서는 벚꽃 구경하고 동네 사람들이랑 삼겹살 구워 먹은 적도 있어요!

그때가... 2002년! 까치공원을 가면 화장실이 크게 있어요, 그럼 거기 흰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빔프로젝트 같은걸 켜고 축구영상을 틀어줬어요. 진짜... 그때, 가정동 사람들 다 모였다고 했어요. 엄청 많이 왔었어요. 거기가 약간 동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재밌었어요!! 오~필승코리아를 외치면서 다시 한번 응원해 보고 싶어요.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거기 까치공원도 참 좋았어요. 까치공원 거기서 애들 데리고 가셔도 좋고, 치킨도 사갖고 가서 먹고, 저는 그 공원이 크게 좋았어요.



미나리깡 모습 (사진제공 : 김종민님)



변화진소아과 (사진출처 : 카카오톡)



2022년도 지도에 표시된 까치공원

4 응답자들, 가정오거리와 사람들

2022. 지역학 자료 수집사업 <응답하라! 가정오거리>를 시작할 때 가장 힘든 점은, 가정오거리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존재를 다시 꺼낼 수 있었던 힘은 오직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가정오거리팀의 요청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인천 서구에서 충청북도 제천에 이르기까지 가정오거리를 잊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분들이 생각난다. 그리고 사진을 들고 문화원으로 찾아오셔서 가정오거리 시절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민분들. 그리고, 전화로, 서면으로 가정오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인천 서구의 몽마르뜨 언덕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 박삼숙

2 다른 동네에 가도 생각나는 우리 동네, 가정동 이진숙(가명)

3 개나리아파트에 청춘을 묻다 지순철

4 네모현수막과 장난감나라 김금이

5 특별한 날은 영빈관과 함께 이영순

6 어린이 버뮤다 삼각지대, 가정오거리 임승록

7 카페 그루터, 가정동의 뉴 피플(New people)이 되다 김근우

8 봉수교육-사람됨의 철학-으로 세상을 밝힌다 이정미

1 인천 서구의 몽마르뜨 언덕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

- 인터뷰 일시 : 2022.06.08.(수), 15:00
- 인터뷰 장소 : 인천서구문화원 강의실

박삼숙 (57세, 전 인천 서구의회 의원)

새로운 일의 터전_나의, 가정오거리

<응답하라! 가정오거리>의 첫 인터뷰에는 박삼숙 전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이하, 박삼숙) 응답해 주셨다. 결혼과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던 박삼숙은, 다시 보육학 공부를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의 위치를 잡은 곳이 개나리아파트 근처였다. 당시 작은 어린이집이었는데 개발이 되기 전까지 3년 정도 한 자리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했다.

“ 개나리아파트 근처에 작은 어린이집을 열었습니다. 왜 가정오거리로 정했냐면... 동네에 숲도 있고, 산도 있고... 그게 좋았어요. 이런 자원을 어린이 교육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육아를 하다가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되니, 다시 아가씨가 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 기분으로 새로운 직장이 생긴 곳이 바로, 가정오거리였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어린이집이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어린이집이 있던 곳이 유럽의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경사가 저서요.”



박삼숙님 인터뷰 모습

2 다른 동네에 가도 생각나는 우리 동네, 가정동

- 인터뷰 일시 : 2022.06.14.(화), 15:30
- 인터뷰 장소 : 인천서구문화원 강의실

이진숙 (가명, 60세, 전 동우아파트 거주자, 어린이집 교사)

가정오거리에 붙어온 개발로 어린이집을 이전하다.

개나리아파트 근처에서 3년 정도 어린이집을 운영한 박삼숙은 어느 날 이곳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어린이집을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여윌돈도 없고, 어디로 이전을 해야 할 지... 당시에는 힘든 시기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개발의 소식이 들려와도 당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 걱정에 개발 초기에는 이전을 할 수가 없었고 비교적 뒤늦게 이곳을 떠난 편이었다. 이주해야 할 때가 임박하여 급하게 새로운 어린이집을 개원할 상가를 알아보았지만 이미 상가에도 자리가 없어,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고 회고한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하고 개나리아파트 인근, 뉴서울아파트쪽의 상가로 어린이집을 이전하게 되었다.

박삼숙 전 의원이 전하는 가정오거리 추억

박삼숙은 가정오거리를 교통의 중심지로 기억하고 있다. 가정오거리 인터뷰를 앞두고 당시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며 당시를 회상했다고 한다. 특히, 박삼숙은 인천봉수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인 보라미문구나 개나리문구완구 등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줄 색종이나, 스케치북, 색연필, 풀, 풍선 등을 사러 자주 다녔다고 회상했다. 인근의 이름 없는 시장도 자주 이용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생활이었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과는 종종 화식도 했는데, 주변에 치킨집이 많아서 치맥이 화식의 단골 메뉴였다. 이렇게 치킨과 맥주를 마시고 나서, 영빈관 앞쪽의 노래방에서 선생님들과 스트레스를 자주 풀었다고 한다.

가정오거리 주변의 변화에 대한 마음

우리 서구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늘 그대로라고 한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가정오거리의 기억 속에서 행복했던 그 모습이 너무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기만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가정오거리의 개발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발전이 균형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결혼을 하면서 이사 온 가정동 동우아파트

이진숙님(이하, 이진숙)은 원래 서울 출신으로 결혼을 하면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되었다. 1997년 IMF가 터지고 남편이 하는 일이 조금 어려웠는데 동우아파트가 조금 저렴하고 교통도 좋은 편이라 1997년도에 가정동 동우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결혼하자마자 가정동에 이사와 15년간 동우아파트에 살면서 생활권으로서 가정오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저는 사실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천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내가 가정동에 와서 산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좋은 말은 안하더라구요. 이렇게 좀 낙후된 지역? 인천에서 제일 낙후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말올해서... 아? 그런가? 저는 잘 모르니깐 인천은 그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인천 산다고 하면 주안? 부평? 이 정도만 알았지, 가정동에 산다고 하면 “아~ 거기!!”이렇게 (웃음) 뭐... 그러더라구요. 지금은 굉장히 발전을 한거죠.”



이진숙님 인터뷰 모습

〈인터뷰 영상〉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대어 보세요!



이진숙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기 전까지 전업주부로 살면서 아파트 이웃들과 서로 아이들도 봐주기도 하면서, 정을 나누면서 살아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가정동이 최고의 주거환경이지 않았나 하고 당시를 회상한다. 이진숙은 지금도 그때의 이웃들과 모임을 유지하면서 당시의 추억을 나눈다. 동우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광유치원과 인천봉수초등학교를 보냈으며, 자녀의 부광유치원 재원 당시에 인천봉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운동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인천봉수초등학교에서 열린 부광유치원 운동회에서 (사진제공 : 이진숙님)

주부였던 이진숙이 주로 이용했던 상점들을 보면 당시 가정오거리 인근에 살았던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당시에는 개나리아파트 입구 쪽 변화진소아과를 변소아과, 에덴상가에 있는 박소아과라고 불렀으며 이 두 개의 소아과가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했는데 이진숙은 박소아과를 주로 이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삼희상가에 있는 마트를 주로 이용하다가, 에덴마트가 생긴 후에는 에덴마트로 단골을 옮겼다.

맞은편에 롯데리아는 아이들의 생일파티 장소로 인기였는데, 아이들은 생일파티를 하고 엄마들은 커피를 저렴하게 마실 수 있어 좋았다고 회상한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카페들이 많이 없어서 롯데리아를 더 자주 이용했던 것이다. 이진숙은 가족들과의 외식을 할 때면 흰곰면옥이라는 고깃집에서 외식을 했는데, 이 식당은 서구청 주변으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좋아하는 외식 장소라고 한다.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던 이진숙은 가정오거리에 있는 영빈관에서의 에피소드를 전했다. 직접 본인이 여기서 잔치를 한 적은 없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100일부터 키우다시피 했던 아이가 돌잔치를 해서 영빈관에 방문을 했는데, 낮가림이 심한 아이는 엄마와 아빠, 선생님인 이진숙(아이를 100일부터 맡게 되다 보니 아이가 아빠, 엄마, 선생님만 찾았다고 한다)에게만 와서 돌잔치에 가서 우는 아이만 달래다 온 추억이 남았다. 이후에는 돌체부페가 가정오거리 인근에 생겼는데 신동산교회를 다니셨던 시어머니의 칠순 때는 돌체부페를 이용했다고 한다.

2012년 12월 동우아파트를 떠나다.

이진숙이 동우아파트를 떠나 새로 정착한 곳은 가정동 루원시티의 모 아파트이다. 지금도 가정동에 살고 있는 이진숙은 이곳에 이사온지 10년이 넘었지만 당시 동우아파트에 살 때처럼 이웃 간의 정은 느낄 수 없어 그때가 그리다고 말한다. 당시 개나리아파트를 중심으로 있었던 시장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사먹었던 일들도 지금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동우아파트를 떠난 지금도 가정동에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진숙은 이렇게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

그냥 살던 동네가 편해요.

뭐 그냥 딱데로 굳이 이사 갈 이유는 없었어요.

여기가 정도 들고, 그래도 또 곳곳에 아는 분들이 있고, 아직도 동우 사는 친구들도 있고요.

교통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가정동이 편해요.

지금 저는 만족해요, 어차피 개발을 안 할 수는 없고, 저는 이런 깨끗해진 모습이 좋습니다.

다른 동네에 가면 우리 동네 생각이 나요. 공원 같은 것도 우리 동네가 잘되어 있고요.

저는 만족합니다.

”

〈인터뷰 영상〉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대어 보세요!



3 개나리아파트에 청춘을 묻다

- 인터뷰 일시 : 2022.06.16.(목), 16:30
- 인터뷰 장소 : 인천서구문화원 회의실
- 인터뷰 방법 : 전화인터뷰

지순철 (70세, 전 개나리아파트 거주자, 블로그 운영)

2022년 6월, 인터넷으로 가정오거리 자료를 검색하던 우리에게 개나리아파트의 이사 당시 사진이 한 장 눈에 들어왔다.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블로그 주인에게 우리는 메일을 남겼고, 우리에게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의 전화를 받았다. 지순철 선생님(이하, 지순철)은 현재 제천으로 이주를 하셔서 사전 질문지를 보내드리고, 전화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1987년, 개나리아파트에 입주하다.

직장이 부천이었던 지순철과 가족들은 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때까지 부천에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부평역에서 12번 버스로 20~30분 정도 걸리는 가정오거리쪽에 개나리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때가 1987년이었다. 1987년부터 2010년 개나리아파트를 떠나기까지 23년을 살았다. 투자를 바랐다면 이사도 여러 번 가고 했을 텐데 지순철은 개나리아파트에서 정말 욕심 없이 23년을 살았다고 말한다.



2007년 4월 6일, 차없는 거리 승학길에서(좌), 싱아고개 쉼터(우) (사진제공 : 지순철님)

청춘을 묻은 곳, 개나리아파트

지순철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초에 개나리아파트에 이사를 와서 여기서 둘째인 딸아이를 낳고, 30-40대를 여기서 보냈기 때문에 개나리아파트는 자신의 청춘을 묻은 곳이라 회상한다. 지순철은 당시, 부천 내동IC 주변 일본계 회사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했는데 직장동료들에게 가정오거리에 산다고 하면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는 물음을 들었다.

개나리아파트에 살면서 지순철 가족이 자주 방문했던 곳은 가정동 성당이었다. 독실한 가톨릭자인 지순철은 대대로 신앙을 가져온 집안 출신으로, 고향인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는 어릴 적에 신부님을 보좌하는 복사로 봉사를 하기도 했다. 개나리아파트로 이사를 온 뒤에도 자연스럽게 가정동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다. 가정동 성당은 가정동에서 신현동으로 넘어가는 정서진중앙시장 근처에 있었지만 철거되었고, 현재 원신타널을 지나 원창동에서 청라로 가는 길에 성당이 새로 생겼다.

가정동 성당과 마찬가지로 자주 들렀던 콜롬비아 공원은 지순철의 부인이 둘째 딸을(현재 34세) 임신했을 때부터 만삭 때까지 운동 겸 자주 다녔던 곳이어서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난다고 한다.



2008년 12월 24일 가정동 성당, 성탄절아미사 (사진제공 : 지순철님)

2009년 1월 26일 가정동 성당 마당 (사진제공 : 지순철님)

개나리아파트를 떠나던 날

가정오거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인근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지순철은 이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 우리는, 조금 늦게 여기를 떠났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떠나기가 싫어 갖고, 그래서 그냥 버틸 때까지 버텼었죠. 그냥... 나갈 수 밖에 없을 때까지! 물론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안 가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무서워서 못 살겠더라고... 무서워서... 저기 집들이 다 주위에도 없고...”

지순철이 2010년 4월로 개나리아파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귀갓길 안전이었다. 버스에서 내려서 개나리아파트까지 걸어와야 하는데 '안 되겠다' 싶었던단다. 여러 사정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지만 떠나는 마음에 아쉬움이 가득했던 것은 그날을 기록한 블로그에 고스란히 묻어준다.

4 네모현수막과 장난감나라

- 인터뷰 일시 : 2022.06.24.(금), 16:30
- 인터뷰 장소 : 인천서구문화원 강의실

김금이 (53세, 가정오거리에서 네모현수막, 장난감 나라 운영)

어느 날, 인천서구문화원으로 전화 한 통이 왔다. 본인은 가정오거리에서 네모현수막을 운영했는데, 인터뷰에 참여하고 싶다는 전화였다. 우리는 반가운 마음에 급히 인터뷰 일정을 잡았다. 드디어 6월 24일, 인터뷰를 하기로 한 시간이 되었다. 봉투에 사진을 한~가득 들고 나타난 김금이님(이하, 김금이)를 보자마자 천군만마를 얻은 것 마냥 <응답하라! 가정오거리> 팀에 활력이 돌아왔다. 김금은 딸의 권유로 ‘한번 응답해볼까?’ 하는 마음에 문화원에 연락을 했다. 김금은 1996년에 가정동에 이사를 와서 지금은 인천 서구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경서동에 살고 있다.

네모현수막과 함께 시작한 가정오거리

김금이 가정동에 오게 된 원인은 남편의 사업 때문이었다. 당시 김금이의 가족은 서울 양천구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사업문제로 친구를 만나고 오더니 “인천에 있는 서구 가정동에 가야겠다”라는 말에 “가정동이 어디냐”고 물었지만, 남편이 “가보면 안다”고 해서 서울을 떠나 인천 서구 가정동으로 무작정 이사를 왔다고 한다.



김금이님 인터뷰 모습

처음 가정동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우리가 물었을 때 김금은 이렇게 대답한다.

“어... 저는 어쨌든 특별시에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 자체는 썩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의 순수함도 많이 느꼈구요, 살면서... 그리고 사람의 정감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 같지 않아요. ...<중략> 그때는 다 정겹게 “우리에 좀 봐줘” 그러면 쉽게 봐주고, 서로들 “우리 애 밥 안먹었는데”하면 밥도 챙겨주고 그런 게 너무 감사했고, 이웃의 정 때문에 멀리 못 떠나겠더라고요.”

“

2010.4.29. 목요일,

우리 아이들 유년시절의 추억이 묻어있는 정들었던 가정동을 떠나 실로 23년 만에 이웃 동네로 이사를 했기에 그간 블로그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우리 네 식구가 기거하기에 큰 불편이 없던 터였지만 ... 원치 않던 이사를 하고 만 것이다.

현재 주민의 90% 이상이 빠져 텅 빈 가정오거리는 이미 유명도시가 되어버렸고 야간은 말할 것도 없고 낮에도 사람의 그림자가 드물어 무서울 지경이었다. 수시로 순찰을 돈다고는 하지만 딸 가진 입장에서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고 막걸리 한 병이라도 사려면 인근으로 원정을 가야만 했기에 조만간 떠나기는 해야 했었다. ...<중략>...

마르타(부인의 세례명)가 살던 집 구석구석을 세세히 휴대폰 카메라에 담아온 것을 일부 나열해 봤는데 아마 난생 처음으로 이사를 하게 된 마르타가 몹시 섭섭했던 모양이다.

”



가정동 개나리아파트 이사 모습 (사진제공 : 지순철님)

가정오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해 주신다면...

지순철은 가정오거리 개나리아파트를 떠난 직후 작전동으로 이사를 갔다가 충청북도 제천으로 다시 한번 이사를 했다. 만약에 개나리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었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말에는, 자신이 청춘을 다 바쳐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근간인 가정동 개나리아파트에 대한 아쉬움과 애정이 담백 묻어 있다. 지순철은 가정동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은 아직 인천 청라에 살고 있어 가끔 아들 집에 갈 때 가정오거리를 지나는데 그때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가정오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시냐”는 마지막 질문에, “가정오거리는 살기 좋은 동네였다”고 나지막이 대답한 그의 목소리에서 개나리아파트와 그의 가족이 유독 좋아했던 승학길, 콜롬비아 공원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전해 온다.

<인터뷰 영상>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대어 보세요!





제12회 삼희바둑대회(좌), 딸의 롯데리아 생일파티(우) (사진제공 : 김금이님)
일을 하며, 아이를 키웠던 당시의 삶은 치열했지만 보석같은 아이들이 있어 힘을 낼 수 있었다.

김금이는 처음 남편과 함께 현수막 공장을 운영했는데 그 이름이 '네모현수막'이었다. 보통 현수막이 네모난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처음부터 가정오거리에서 공장을 운영한 것은 아니었고 신현동 방향의 미나리깡 쪽에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1년이 지나서 가정오거리 쪽으로 나왔는데, 다행히 가정오거리 쪽으로 나오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다.

당시에는 현수막을 만들 때 지금처럼 프린트식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작업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현수막 공장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워낙 성실하고 꼼꼼한 남편이 작업을 워낙 잘했고, 당시에 컴퓨터로 나름 디자인도 해서 거래처에 시안확인 작업까지 해준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네모현수막을 찾는 거래처가 많아졌다. 김금이기도 당시 남편을 도와 주문서를 열심히 받고, 또 퇴근해서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눈, 코 뜰새 없이 바빴다고 그 시절을 회상한다.

“ 다른 일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깐 우리가 공장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그랬고,
또 현수막을 만들면 또 잉크를 말려야 되니까...
지금은 말려서 기계에서 쭈르륵 나오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다 말려야 되는 상황이니깐요, 또 말리려면 공간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양이 하루에 딱, 얼마치로 정해져 있었어요.
저희가 9시에 보통 출근을 하는데, 아무리 바빠어도 더 일찍은 안 나왔어요,
힘이 들어 못 나오겠더라고요. 9시에 나와서 제가 전화로 주문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1시간 안에 주문이 다 차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 사람이 너무 지치잖아요,
언제부터는 그게 너무 싫어 지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늙더라고요. ”



당시 네모현수막에서 딸과 남편 (사진제공 : 김금이님) 2012년 9월 로드맵에는 네모현수막이 있었던 자리에 같은 금강현수막공장이 있다. (사진출처 : 네이버맵)

선거철이나 지역에 행사가 있는 시즌이면 김금이 부부의 현수막 공장은 더욱 바빠졌다. 현수막 공장을 운영하며 많은 돈도 벌었지만 김금이 부부는 당시에 너무 지쳐있었다. 때마침 출력만 하면 되는 현수막 제작기법이 나오면서 남편은 '현수막 공장을 그만하자'고, 김금이에게 이야기 했고, 당시 공장의 매수를 원하는 지인이 있어 자연스럽게 현수막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가정오거리에서의 제2의 삶, 에덴상가 장난감나라

2000년대 초반, 김금이는 에덴상가 1층에서 완구점도 잠깐 운영했었다. 김금이는 남편과 현수막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남편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던 때, 때마침 누가 완구점을 내놓는다고 해서 '에 데리고 이거나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완구점 일을 시작했다. 김금이는 완구점을 운영하던 그 시절을 너무 재미있었던 시기라고 회상한다. 현수막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 수완이 생겨서인지 완구점의 물건도 잘 팔린 데다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 또래의 엄마들이 가게에 오면 빵이랑 커피 등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장난감나라는 상가를 조그맣게 나눠서 마련한 6~8평 정도의 가게였지만 그 자리에서 규모에 비해 정말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김금이는 그렇게 장사가 잘됐었던 이유를 가정오거리 인근에 장난감 가게가 없었고, 경기가 어려워도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은 사주었기 때문으로 꼽는다.

“ 당시 최고로 잘 팔렸던 아이템은 신발이나 작은 장난감이었어요.
어린날, 설날 이렇게 되면 옷가게도 잘되기는 했지만
좀 서민들 입장에서 옷은 못 사줘도 신발은 사준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장난감은 애들이 떼쓰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면
신발을 사면서 작은 장난감이라도 꼭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된거 같아요. ”

5 특별한 날은 영빈관과 함께

- 인터뷰 일시 : 2022.07.07.(목), 14:30
- 인터뷰 장소 : 인천서구문화원 회의실
- 인터뷰 방법 : 전화인터뷰

이영순 (48세, 영빈관에서 돌잔치 경험이 있음)

가정오거리를 떠나다.

김금이는 이후 에덴상가 1층에서 장난감나라를 3년 정도 운영하다가 가정오거리를 떠나게 되었다. 처음 가정동으로 이사올 당시에는 서울에 집을 팔지 않고 '잠깐만 있다가 가야지'라는 생각이었는데 3년이 되고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본인이 가정동에 계속 살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성광아파트에 살았다가, 뉴서울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다시 개나리아파트에 살다가 2010년경 개발로 인해 집을 비워주고 청라로 이사를 가게 됐다. 주변의 이웃들도 이주 해야 할 때 먼 곳까지 가지 못하고, 가좌동, 가정동, 검단 쪽으로도 많이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억했다. 지금은 가정동을 떠났지만, 가정동이 예전처럼 화목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영빈관! 바로 가정오거리의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가정오거리에서 부평 방면으로 가던 12번, 103번 버스 안, 1층에는 마네킹이 입은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늘 시선을 끌었다. 우리 <응답하라! 가정오거리> 팀은 영빈관을 기억하고 있는 응답자를 계속 기다려 왔는데 7월의 시작과 함께 영빈관에서 두 아이의 돌잔치를 했다는 제보자가 나타났다. 반가운 마음에 인터뷰 날짜를 잡았다.

교통이 좋았던 가정오거리

신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순님(이하, 이영순)은 당시 가정오거리가 발전된 곳이었다고 기억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신현동으로 넘어오던 길에는 미나리강도 잔뜩 있어 '좀 시골스러운' 곳이었지만, 그래도 당시 지인들과 이 근처에서 만날 때면 “어디로 와라, 어디로 와라.”하는데 주변에 특별히 큰 데가 없어서 가정오거리에서 주로 만났다고 회상한다. 더구나 가정오거리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올 때도 바로 고속도로를 빠져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약속장소로 나름 매력이 있었다.

“ 너 어디에 사니? 인천 어디 사니? 이랬을 때 신현동 하면 잘 모르는데 ‘가정오거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정오거리를 보면 와~ 이렇게까지 변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솔직히 옛날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깐요. 여기가 뭐가 있었는데... 이려고 지나가는 거 같아요. 솔직히 요즘은요...”

잔치 장소로 가성비 갑! 서인천 영빈관

이영순은 영빈관이 잔치 장소로 가성비가 아주 좋았다고 회상한다. 가격도 괜찮고, 음식 맛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교통이 좋아서 영빈관을 자주 이용했다고 한다. 이영순이 영빈관을 이용한 것은 모두 3번으로 2001년도 첫째 돌잔치, 2003년도 어머니 회갑 잔치, 2005년도 둘째 돌잔치 때였다.

첫째 딸의 경우 몸이 많이 아파 8개월을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아이가 아파 100일은 병원에서 조출하게 지낸 터라 아이의 돌잔치만은 꼭 해주고 싶었다. 다행스럽게도 회복이 잘되어 돌잔치를 해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던 당시를 회상했다. 첫째 딸은 돌잡이로 붓을 잡아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영순은 첫째 딸의 돌잔치를 무사히 치르고 ‘영빈관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큰 오빠에게 “엄마 회갑 잔치를 여기서 하는게 어때냐”고 강력추천을 했다. 큰오빠의 동의로 영빈관을 별 탈 없이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예약이 붐비거나 그러지 않아서 원하는 날짜에 어머니 회갑 잔치를 할 수 있었다.

〈인터뷰 영상〉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대어 보세요!



당시 이영순의 친정은 전라북도 고창이었는데, 7남매와 어머니가 회갑 잔치를 하러 가정오거리 영빈관으로 모였다. 시골에서 직접 받은 어머니 회갑 사진을 보고 둘째 아들의 "왜 본인은 없냐"는 말에 "너는 내 뺏속에 있었다"라고 말하며 웃기도 했지만 사진 속, 어머니와 젊은 시절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세월이 지났구나"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감회에 젖는다.



서인천 영빈관 예식홀 뷔페에서
2001년 첫아이 돌잔치(좌)와 어머니의 2003년 친정어머니 회갑잔치(우) (사진제공 : 이영순님)

“

저희가 7남매인데 다 모였었죠.
그때... 그때만 해도 이제 아직은 아이들이 어렸기는 했는데
어쨌든 형제들이 일곱이 가서 거의 다 갔으니까요.
결혼들을 다 해서 손주들까지 꽤 많아요. 사진 보면 있더라구요.
제가 사진을 시골에 있는걸 공수해서 받았거든요?
7남매 중에 큰 아들, 그러니깐 저희 큰 오빠가 여기 있고, 둘째 언니가 여기 살아요.
그래서 저까지 3명이 살아요.
여기에 그래서 큰 오빠 위주로 이게 좀 하다 보니깐
그 오빠가 인천에 있어서 여기서 했어요.

”

이영순은 영빈관이 걸어서 보기에 멋지고 좋은 건물은 아니었지만, 인천 서구에서 잔치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소였다고 한다. 이후, 2011년에 셋째를 출산했지만 셋째 때는 영빈관이 없어서 그곳에서 돌잔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영빈관의 건물 모습(위, 우)과 2층 백광석 정보처리학원(아래, 우) (출처 : 카카오맵)
아직도 옛 가정오거리 근처를 다니면 백광석 정보처리학원의 홍보물을 만날 수 있다. (좌)

6 어린이 버뮤다 삼각지대, 가정오거리

- 인터뷰 일시 : 2022.07.28.(목), 16:00
- 인터뷰 장소 : 인천서구문화원 강의실

임승록 (29세, 인천봉수초등학교 졸업생)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 인터뷰하기를 바랐던 <응답하라! 가정오거리> 팀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초등학교 시절을 가정오거리에서 보낸 임승록님(이하, 임승록)의 인터뷰 날짜가 잡힌 것이다. 임승록은 가정오거리 추억을 막 제보 받기 시작했을 때, 절실히 응답을 기다리던 우리에게 가정오거리 롯데리아의 생일파티 사진과 인천봉수초등학교 입학 사진을 보내주신 고마운 분이다. 만난 적은 없지만 상당히 우리 사업에 호의적으로 접근해 주셔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느껴지는 강렬한 내적 친밀감과 자연스러움이 심상치 않았다.

“

응답하라는 취지가 사실 저한테 딱 맞는 거 같은 게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의 추억이 짧지만 사실 강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도로화 사업으로 인해
제가 살았던 그때 당시의 모습은 이제 아예 없는데
이제 또 이런 거를 기념한다거나
추억하는 거라고 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

56



임승록님 인터뷰 모습

내 학창시절의 놀이터, 가정오거리-어린이 버뮤다 삼각지대

임승록의 아버지는 부평에 있는 대우자동차를 30년 동안 다니셨는데 원래는 부평에서 살다가 대우사원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임승록의 생각으로는 아마 당시에 10만원 정도를 내면 아파트에 살 수 있었으므로 부모님이 돈을 모으시기 위해서 가정동으로 오신 것 같다고 한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임승록에게 가정동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큰 모험이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동네로 나가기보다는 가정오거리 전체를 자신의 놀이터로 삼았다. 특히 임승록은 가정오거리 중에서도 당시 초등학생들이 좋아해 놀다가 집에도 못 갈 정도로 좋아했던 장소를 '어린이 버뮤다 삼각지대'라고¹²⁾ 표현했다.

“

삼희상가, 에덴상가하고 맞은 편에 롯데리아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당시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
그 당시에 pc방이 막 생겼을 때고 그러다 보니깐 pc방이 있고,
1층에는 떡볶이나 이렇게 분식 같은 걸 먹을 데가 있고,
또 맞은 편에는 이런 아이들 그때 당시에 롯데리아 하면 껌뻑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자주 가다 보니깐 거기서 가장 추억도 많고,
엄혀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

57

어린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임승록이 제일 좋아했던 곳은 예상 외로 병원과 pc방이었다. 어린 시절 허약했던 그는 병원을 유독 많이 갔는데 에덴상가, 삼희상가에 병원이 많아 어머니와 위의 두 상가에 자주 들렀다. 임승록은 어린이 답지 않게 병원에서 나는 썩 냄새를 특히 익숙한 듯 좋아했는데 침을 맞는 게 이상하게 재밌었다고 한다. 특히 병원다녀온 후 어머니는 친구와 맨 꼭대기 헬스장을 가셨고, 엄마 친구 아들과 임승록은 그 옆에 pc방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즐겼다. 임승록의 기억에 의해 구성된 어린이의 하루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대우사원아파트에서 나와 군부대를 지나, 고물상이 있었는데 그 옆에 풍뎉이를 지나고, 시장을 지나 인천봉수초등학교로 간다. 인천봉수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 오후 1시나 2시. 그때부터 임승록은 햄버거도 먹고, pc방도 가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집에 오면 엄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혼을 내셨다.

12) 버뮤다 삼각지대는 버뮤다제도를 점으로 하고 플로리다와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선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해역을 말한다. 이 해역에서는 비행기나 배의 사고가 잦아 '마의 바다'라고도 불렸으나 사고가 잦은 이유는 우연이라고 결론이 났다. 임승록이 버뮤다삼각지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가정오거리 지역에서 한번 빠져나오면 매력이 있어 나올 수 없는 지역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0574&cid=40942&categoryId=32300>

하루는 풍푹을 타고, 하루는 pc방을 갔는데 학교 주변의 문구점에는 오락기가 있어서 친구들과 오락을 하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물론 초등학교 당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인천봉수초등학교 개나리아파트 상가의 오렌지음악학원과 삼희상가 근처에 영어학원, 영빈관 2층에 백광석 정보처리학원에 다녔는데 백광석 정보처리학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상을 한다.

“ 이때 당시에 이런 정보처리 학원이 되게 유행처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정보처리학원에 되게 고마운게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더블 클릭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한글... 한글 페이지 만들고, 표 만들고 이런것도 미리 배웠으니까....
좀 학교 수업시간에 편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지 모르겠지만요.

추억이 많았던 대우사원아파트

임승록이 살았던 대우사원아파트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웃 사이에 정이 많았던, 마치 드라마 <응답하라 1988>과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한다. 문을 열어두고 함께 수박도 먹고, 정감이 많았던 대우사원아파트... 임승록은 이 아파트에 이사오던 날을 잊을 수 없다. 까치공원은 원래 롤러브레이드나,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 있었는데 어디서 구해왔는지도 모르게 아버지가 마대자루를 구해오셔서 함께 썰매를 탔는데, 30살이 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했던 재밌는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대우사원아파트에서 떠오르는 추억 하나가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다.

“ 사원아파트 특성상 우리는 다 아는 사이니까... 맨날 친구네 놀러 가고 그랬어요.
아! 기억이 또 나는 게 저희 어렸을 때 빨간 마스크 이런 얘기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근데 저희집이 3층이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1층이었는데
당시에 빨간 마스크 속설이 뭐냐면
3층 이상은 빨간 마스크가 못 올라온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1층에 사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빨간 마스크가 쳐들어 올 것 같아 무섭다고 그래서
아빠한테 연락해서 저희 아빠한테
“저 너무 무서운데 빨간 마스크가 3층에 못 올라온다고 승록이네 집에서 자면 안돼요?”
해 갖고 그날 저희 집에서 친구가 자고 그랬던 것도 같아요.

추억이 많았던 대우사원아파트를 떠나다.

이렇게 추억이 많았던 대우사원아파트와도 이별의 순간을 맞게 되었다. 임승록의 가족은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정동을 떠났다. 부모님께서도 당시 머리가 큰 아들 둘이 살기에 대우 사원 아파트가 조금 좁게 느끼셨던지 이사를 결정하셨다. 가정동 대우아파트를 떠나 찾은 보금자리는 효성동이었다. 가정동은 친구들끼리 가정오거리를 중심으로 모였다고 하면 효성동은 딱히 구심점이 없었던 것 같아 조금 그런점이 아쉬웠다. 임승록의 어린 시절, 가정오거리는 그야말로 '메인 스트리트', 친구들과 모이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임승록은 효성동에 이사를 간 다음에도 12번 버스를 타고 가끔 가정오거리에 놀러 왔다고 한다. 가정오거리 개발이 들어간 후, 함께 인천봉수초등학교를 다녔던 친구들도 하나, 둘 학교를 떠났다. 임승록이 학교를 다닐 때 만 해도 인천봉수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학급이 12반이나 되는 큰 학교였다. 학생들이 엄청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이후에 임승록이 가정동을 찾았을 때에는 친구들도 많이 이사 가고, 가정오거리도 더이상 옛날 느낌은 아니었다.

지금은 부평구에 사는 임승록씨. 부평에서 인터뷰를 하러 인천서구문화원이 있는 가정동으로 올 때, 한 번에 땀 뚫린 길로 오면서 세월의 변화를 느꼈다고 한다. 만약에 냉동인간이 10년 만에 깨어나 여기를 오면 “이게 내가 아는 가정오거리야?”할 정도로 아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아는 가정오거리가 없어졌구나' 하는 아쉬운 마음을 털어 놓았다.



2022년 9월 5일 촬영, 임승록이 살았던 대우자동차 사원아파트



2022년 9월 5일 촬영, 세월이 느껴지는 명판

〈인터뷰 영상〉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대어 보세요!

7 카페 그루터, 가정동의 뉴 피플(New people)이 되다

- 인터뷰 일시 : 2022.06.29.(수), 15:00
- 인터뷰 장소 : 인천서구문화원 강의실

김근우 (34세, 가정오거리는 모르는 서구 사람, 그루터 카페 운영)

<응답하라! 가정오거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가정오거리를 모르는 현재 루원시티 사람, 직장이 가정동이거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가정오거리는 잘 몰라도, 지금의 루원 시티에 살며 새로운 동네를 알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인천서구문화원 SNS를 통해서 가정동의 뉴 피플(New people)을 모집해 봤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뉴피플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지 않았다. 여러 곳을 조사하고 문의한 결과, 현재 '그루터'커피를 운영하는 김근우 대표님(이하, 김근우)을 섭외할 수 있게 되었다. 김근우는 카페가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봐서 문화원으로 직접 와주겠다고 했고 2022년 6월 29일, 오후 3시, 우리는 다소 어색하지만 순조롭게 인터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인터뷰를 수락하시게 되었냐는 질문에 김근우는 동네에서 그루터를 운영하면서 서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그루터에 제안하면서 지역에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터뷰도 흔쾌히 수락하셨다는 말씀! 가정오거리, 아니 루원시티의 뉴피플(New people)... 김근우를 만나보자.



김근우님 인터뷰 모습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가정동 뉴피플 모집

도망치듯(?) 달려온 루원시티, 그리고 하루에 잠시 낮선 기분_그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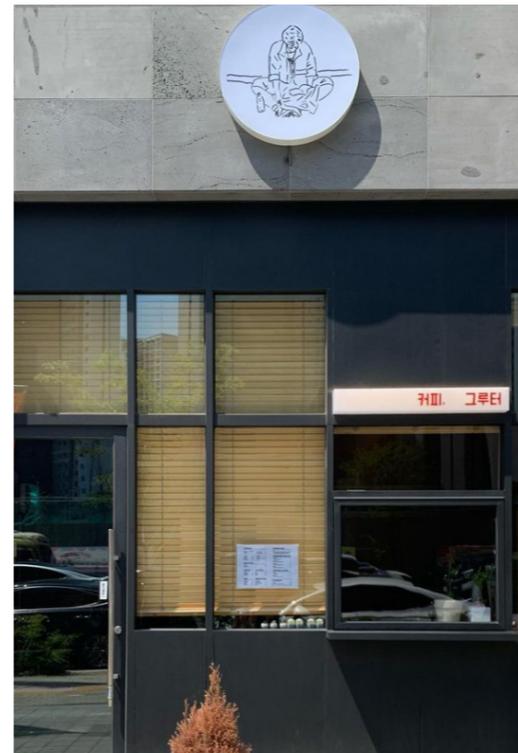
김근우는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이었다. 문학을 전공했고, 글이 주업이었고, 커피는 그냥 관심만 있는 정도? 그러던 그는, 아르바이트로 커피를 시작하게 됐고, 일상이 되면서 커피를 만드는 일을 계속 전문적으로 하고 싶었다. 마침내 카페를 오픈하려고 많은 곳을 돌아보게 됐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하다고 소문난 연남동, 망원동, 그리고 인천 서구의 청라...에서 그의 첫 카페 장소를 찾고 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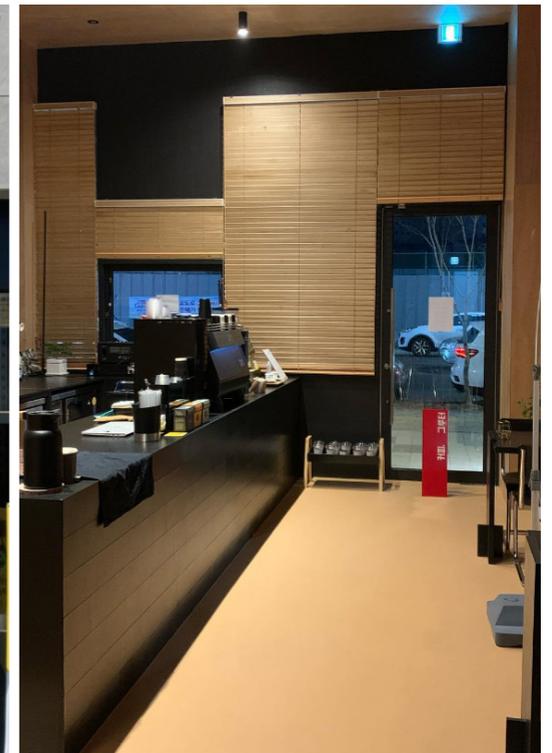
연남이나 망원 같은 곳은 약간 동네라는 느낌보다는 멀리에서 왔다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카페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청라를 알아봤는데 제가 봐둔 곳이 있었는데 그때 그 주변에 카페가 6개가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망가자”(웃음) 이러면서 이렇게 가다가 쪽 봤는데, 그날 되게 신기했던 게 그렇게 가정동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걸어서!

”

김근우가 처음 가정동에 왔을 때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의 상권이 막 생기기 시작한 참이었다. 주변에 건물들이 높이 올라가고 있었고, 쓰리엠타워 앞에 큰 길이 있었기 때문에, 잘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2020년 12월 커피점 그루터를 오픈하게 되었다. '하루에 잠시 낮선 기분' 이것이 그루터 카페의 모토(좌우명)이다. 현재는 김근우와 3명이 직원이 그루터에서 일하는데, 모두 인천 서구 사람들이다.



그루터 카페_ 동그랗고 까맣고 빨간 그런 느낌



2020년 12월 오픈 하루 전 어느 날 (출처: 그루터 인스타그램)

8 봉수교육-사람됨의 철학-으로 세상을 밝힌다

- 인터뷰 일시 : 2022.09.13.(화), 10:00
- 인터뷰 장소 : 인천봉수초등학교 교장실

이정미 (교직 생활 37년째인 인천봉수초등학교 교장선생님)

2020년 12월 이후, 조금씩 단단한 동네로 변화하리라는 믿음

김근우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일단 그루터가 있는 쓰리엠타워 1층에는 약국밖에 없었고, 이후 부동산이 들어왔다. 각 상가에는 사무실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루터의 손님들도 직장인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말이나 저녁에 동네 분들도 그루터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며, 동네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유동 인구층이 조금 더 다양해졌다고 할까?

“ 체감적으로는 되게 빨리... 왜냐하면 변화가가 될 줄 알았어요.
 굉장히 빠르게 자리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주변 상점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가게 분들이나
 어쨌든 이 동네가 커질 것이라는 믿음과 좀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다른 변화가들과는 다르게
 ‘조금씩 단단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김근우가 가정동에서 그루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손님들이 ‘커피 맛있다’고 할 때다. 2020년부터 여기 있다 보니 루원시티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도 다시 찾아오셔서 인사를 건네어 주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근우는 마음을 다잡는다.

가정동 뉴피플, 김근우가 바라는 가정동의 모습은...

김근우는 앞으로 이 지역이 맛있는 것도 많고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약간 아쉬움이 드는 것은 가정동에 문화공간이나 산책할 만한 공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들이 가정동에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쪽 동네만이 아니라 가정동 전체가 조금 더 교류도 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 동네 자체가 매력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함께 해보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옛 가정오거리 지역에서 변화 없이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곳은 현재 얼마 남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소용돌이 같은 지형의 변화 속에서 그대로인 곳, 그곳이 바로 인천봉수초등학교이다. 막바지 무더위로 기승을 부리던 8월, 우리는 인천봉수초등학교에 학교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요청 연락을 보냈다. 그런데, 웬지,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터뷰에 한 분만 더 추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현재 인천봉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지역의 변화와 학교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이정미 교장 선생님(이하, 이정미 교장)과 <응답하라! 가정오거리>의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첫 교장 부임지, 인천봉수초등학교

이정미 교장은 올해로 37년의 교직 경력으로 일반교사로 시작해,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인천천마초등학교 교감직을 역임했다. 올해부터 첫 교장의 임무로 인천봉수초등학교에 부임하게 되었다. 이정미 교장과 인천봉수초등학교의 인연, 그 시작은 장학사 시절로 되짚어 올라간다. 이정미 교장은 당시 업무로 인천봉수초등학교에 여러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생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학교의 규모가 작아지던 때였다.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하는 모습을 보며 학교의 운명이 걱정될 정도였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교장이 되어 돌아온 인천봉수초등학교 주변은 상당한 변화가 휩쓸고 간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어느 정도 주변 지역의 개발이 마무리되고 올해 말부터 입주하게 되는 주변의 아파트들을 보며, 교육자로서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찰 학교를 상상하게 되지만, 그와 함께 우리 학교가 이 지역에 어떤 희망이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이정미 교장선생님 인터뷰 모습

인천봉수초등학교의 자랑, 아이들

이정미 교장은 인천봉수초등학교의 자랑이 아이들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37년간 여러 학교를 거쳤고, 순환 근무 등으로 다양한 도시에서 근무를 했지만 인천봉수초등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정(情)이 넘친다고 말한다. 대체, '정(情) 스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 대해 이정미 교장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너무 정이 넘친다, 전에는 자신이 부족해서 느낄 수 없었는지 모르겠다'라며, 그런 아이들이 인천봉수초등학교의 자랑이라고 답했다. 인천봉수초등학교의 자랑, 아이들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 학교에서는 조금 색다른 이벤트도 진행했다. 교직원들은 근무연한을 채우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교직원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동네를 좀 돌아 보자'는 취지로 올해 4월 27일, <봉수초, 마을길을 걷다>를 진행했다. 아직은 공사현장이 있어 위험한 아이들의 등굣길을 돌아보며,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아이들은 우리 동네를 걷는 선생님들을 보고 나서 "선생님, 어제 왜 우리 동네 지나가셨어요? 저 선생님 봤어요!" 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이정미 교장은 아이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고 당시 소감을 말했다.



올해 4월 27일 진행한 <봉수초, 마을길을 걷다> 모습 (사진제공 : 인천봉수초등학교)

인천봉수초등학교 변화들

인천봉수초등학교는 1988년 9월 1일자로 개교를 했다. 처음에는 주변에 막 지어진 아파트 등으로 인해 학교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고 한다. 이 학교에 근무했던 다른 분들에게 학교의 역사를 물었더니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한다.

“제가 인터뷰 전에 이전에 인천봉수초등학교에 근무하셨던 선생님과 연락을 해서 몇가지 여쭙다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 인천봉수초등학교가 86학급 정도로, 전교생이 3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전입하는 학생 중 3,333명째 해당하는 학생에게 자전거를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당시 학교의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 가정오거리 개발과 그에 따른 이주로 인해 가정동은 서구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동이 되었고¹³⁾ 학령기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인천봉수초등학교의 작년 학급수는 총 9학급으로, 가정오거리 개발 이전 86학급이었던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감소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12학급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정미 교장은 주변의 아파트가 완공되어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학령기 인구도 함께 늘어나 내년에는 인천봉수초등학교가 50~60학급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 활기차게 교육받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야 학교가 활기찬데요, 일단 안타깝게도 너무나 주변의 계획에 의해서 집들이 철거되고 변화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가운데서 학교가 우뚝 솟은 느낌? 섬 같은 느낌이 들었고, 주위에서도 봉수학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위축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작지만 내실 있는 교육과정으로 우리는 학교를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들은 그것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학교 주변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다시 활력을 찾을 것만 같습니다. 저는 우리 봉수학교가 희망이 될 것으로 믿고 있어요.”

13) 2010년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은 청라동 4,405명, 가정2동 9,515명, 가정1동 12,030명 이었다. 그러나 2011년 청라동의 인구는 25,624명으로 급증하게 되었고, 2012년 가정2동은 8,280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이 되었다. 『서구사-상』(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p.461.참조.

학교의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인천봉수초등학교에서도 이에 대비를 하고 있다. 먼저 아이들이 공부할 장소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인천봉수초등학교는 원래 중앙의 본관과 나머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다목적 강당을 지었다. 급격히 학생이 줄었던 시기에는 본관만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동은 사용을 하지 못했다. 이정미 교장은 동관과 서관의 리모델링을 들어가 석면 공사를 다 마쳤고, 내년 2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해 내년을 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천봉수초등학교의 현재 모습

봉수교육-사람됨의 철학-으로 세상을 밝힌다

가정오거리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인천봉수초등학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위의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봉수만의 교육철학은 무엇일까? 이정미 교장은 '봉수(烽燧)'의 의미에서 그 답을 찾는다. 햇불과 연기로 나라의 위기 상황을 알려주던 봉수, 어떻게 보면 이름이 촌스러울 수 있지만 인천봉수초등학교는 옛날부터 이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렇기에 아이들에게 늘 봉수라는 이름을 설명하며 “너희들이 이 지역의 가장 중심인물로 성장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대학을 얼마나 보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사람됨의 기초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 지역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한 것처럼, 봉수를 거쳐 가는 학생들이 그런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사람됨의 철학을 가지고 지역에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봉수의 철학이라는 말과 함께 인터뷰가 마무리되었다.

〈인터뷰 영상〉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대어 보세요!



에필로그 나에게 가정오거리는...

박삼숙에게 가정오거리는 새로운 시작이다.

홍미나에게 가정오거리는 만남의 장소이다.

이진숙에게 가정오거리는 새로운 직장이다.

지순철에게 가정오거리는 청춘을 묻은 곳이다.

이형순에게 가정오거리는 일상의 중심이다.

김금이에게 가정오거리는 가족이 머물렀던 행복한 시기이다.

김근우에게 가정동은 조금씩 단단해 질 곳이다.

황규선에게 가정오거리는 내 고향같이 편안한 곳이다.

이영순에게 가정오거리는 시골스러운 곳이다.

임승록에게 가정오거리는 가장 즐거웠던 어린시절의 놀이터이다.

이정미 교장에게 가정오거리는 새로운 비전이다.

우리는 SNS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정오거리의 여러 장소를 짚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정오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가정오거리에 사람들의 치열한 삶이 있었고, 그 안에 사랑과 즐거움이 가득했으며 그 덕분에 따스한 동네였음을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가정오거리 응답러분들, 그리고 인터뷰, 사진 및 사연 제보로 <응답하라! 가정오거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응답하라! 가정오거리

- 1 봉수초등학교
- 2 영빈관
- 3 삼희상가
- 4 개나리아파트
- 5 동우아파트(1, 2차)
- 6 개나리아파트 앞 시장 ↑
- 7 롯데리아(정류장 건너편)
- 8 뉴서울아파트
- 9 미나리깡
- 10 천마산
- 11 에덴상가(장난감나라)
- 12 개나리문구완구
- 13 까치공원
- 14 콜롬비아공원
- 15 대우사원아파트
- 16 신동산교회
- 17 한신빌리지
- 18 가정터, 기동대
- 19 현광아파트
- 20 하나아파트
- 21 가정동성당
- 22 성광아파트
- 23 자혜의원
- 24 풍풍장
- 25 삼화고속
- 26 보라미문구



2022. 지역학 자료 수집사업

응답하라! 가정오거리

결과자료집

발행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행일	2022년 12월 20일
발행인	정군섭
총괄기획	서덕현
편집기획	임혜선, 유지인, 조혜린, 김혜정, 원서영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쓰리엠타워 7층)
전화	032-582-4341
팩스	0502-582-4742
이메일	inscc@naver.com
웹	www.inscc.kr
주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주관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디자인	아츠비
자료협조	쇼박스, 인천봉수초등학교